

20 Years of Classical Music/ December 2008

Naxos new release

8.570027

모차르트:
마술피리, 황제 티토의 자비
(목관을 위한 편곡)
작센 윈드 아카데미

8.570486

하이든:
3개의 오르간협주곡,
2개의 하프시코드협주곡
하랄드 호렌(org)
케틸 하우그산트(cemb)
헬무트 뮐러-베르크
콜른 챔버 오케스트라

8.570798

비발디:
바순협주곡 Vol.5
(RV.466, 469, 473, 491,
496, 497)
타마슈 벤코치(bn)
벨라 드라호스
니콜라스 에스테르하지 신
포니아

8.570296

베버:
서곡(마탄의 사수, 오베론,
오이리안테, 아부하산 외)
안토니 비트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
라

8.570788

브루크너:
현악오중주, 현악사중주,
간주곡 D단조
파인 아트 콰텟, 길 샤론
(va)

8.559306

코릴리아노:
바이올린소나타, 레드바이
올린 카프리치 외
이다 비엘러(vn)
니나 치터맨(pf)

8.570763

시벨리우스:
쿠올레마, 밤의 여행과 해
돋이, 벨사자의 축제 외
피에타리 인킨엔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8.570925

로자:
바이올라협주곡,
헝가리 세레나데
길다르 카르니(va)
마리우스 슈몰리
부다페스트 콘서트 오케스트
라

8.570741

레스피기:
라 프리마베라, 마술가계,
4개의 서정곡
여러 가수들
슬로박 필하모닉 합창단
아드리아노
슬로박 방송교향악단

8.572076

브레톤:
안달루시아 모음곡,
알람브라, 돌로레스, 가
린,
테루엘의 연인 외
미구엘 로아
마드리드 커뮤니티 오케스
트라

8.559614

카터:
탄생 100주년 기념음반
(모자이크, 다이얼로그,
피그먼트 1,2번 외)
로버트 애트킨
뉴 뮤직 콘서트 앙상블

8.559602

애들러:
음악 시 예술 그리고 사
랑 플루트소나타,
피아노협주곡 3번 외
로라 넬슨(pf),
캐롤 윈첵(f) 외
에일리 프리먼 브라운
볼링 그린 필하모니아

8.559247

수사:
아메리카 퍼스트,
대통령 폴로네이즈,
골드 주빌리 행진곡 외
키스 브리언
영국 왕립 포병 군악대

8.572095

트베이트:
목관을 위한 작품들
비야르테 엔세테
노르웨이 왕립 해군 군악
대

8.559351

스미스:
바이올린소나티나, 피아
노소
나타, 비올라소나타 외
제프리 그로스만(pf)
사라 달링(vn & va)

8.570492-93

로만:
12개의 플루트소나타
베레나 피셔(fl)
클라우스-디터 브란트
(vc)
레온 베르벤(cemb)

8.570504

빌라-로보스:
연습안내곡
(guia prática) 10, 11,
어린이모음곡 1,2번 외
소니아 루빈스키(pf)

8.570957

하지다키스:
피아노작품집
(작은조개껍질을 위하여,
이오니아모음곡 외)
다나에 카라(pf)

8.570314

라인베르거:
오르간소나타 17, 18번,
모놀로그, 전주곡과 푸가
볼프강 뢰브츠(org)

8.570838

슈베르트:
가곡 Vol.29
(위로, 부친살해, 저녁노
래, 아침노래 외)
페르디난트 폰 보트머(te)
울리히 아이젠베르거(pf)

8.57017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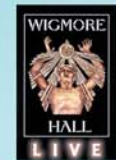
Classical chill
ultimate collection
various artists

8.570340

하이든:
교향곡 전집
various artists

Aulos news

아울로스 뉴스 제 35호 | January 2009



SAIN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JUXTAPOSITIONS™

PROPHONE



MN RECO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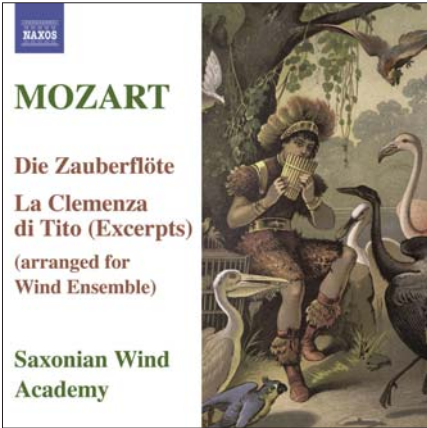
Music & Arts

Cover Story
아울로스에서 수입하는 레이블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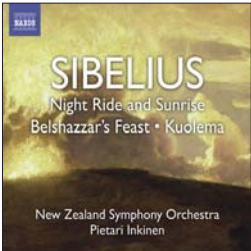


Naxos

www.naxo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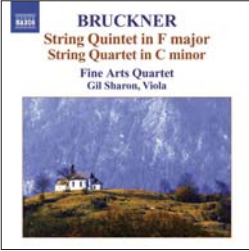
8570027
모차르트: 마술피리, 황제 티토의 자비(목관을 위한 편곡)
작센 윈드 아카데미
1782년 요제프 2세는 궁정악단의 단원들로 목관앙상블을 조직케하였고 이를 위해 당대의 인기 오페라들을 편곡케 하였다. 모차르트의 마지막 두 오페라도 포함되었다. 본 음반은 하이덴라이히가 편곡한 '마술피리' 전체와 트리벤제가 편곡한 '황제 티토의 자비' 일부를 수록하였다. '밤의 여왕의 아리아'와 같은 일부 선율이 빠진 아쉬움이 있지만, 귀에 익은 선율을 목관앙상블의 독특한 음향으로 만나는 재미가 쏠쏠하다.



8.570763
시벨리우스:
쿠올레마, 밤의 여행과 해돋이, 벨사자의 축제 외
피에타리 인키넨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시벨리우스는 아르네펠트의 희곡 '쿠올레마'(죽음)를 위해 극부수 음악들을 작곡하였다. 그중 '슬픈 왈츠'는 작곡가의 대표인 기곡의 하나로 유명하며, '학이 있는 풍경'과 '칸초네타'의 서정미 역시 빼어나다. '벨사자의 축제' 역시 프로코페의 희곡을 위해 완성한 작품으로 작곡가는 그 중 4곡을 골라 동양풍의 정취를 담은 관현악모음곡을 만들었다. '밤의 여행과 해돋이', '판과 에코' 등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0925
로자:
비올라협주곡, 헝가리 세레나데
길라드 카르니(va)
마리우스 슈몰리
부다페스트 콘서트 오케스트라
'벤허', '퀴바디스', '아이반호', '왕중왕' 등의 헐리우드 거작들의 영화음악으로 널리 알려진 형가리 출신의 작곡가 미클로스 로자. 그는 정통 클래식 분야에서 도 상당수의 주목할만한 작품들을 완성하였다. 핀커스 주커만을 위해 완성한 비올라협주곡은 자국의 전통음악과 근대음악서법을 접목한 작품으로, 바르토크와 코다이의 영향이 느껴진다. '헝가리 세레나데'는 제2차 세계대국의 항토색을 확연히 드러내는 작품이다.



8.570788
브루크나: 현악오중주, 현악사중주, 간주곡 D단조
파인 아츠 콰텟, 길 샤론(va)
거대 교향곡들의 위용에 가려져 있지만, 브루크너가 작곡한 현악오중주와 현악사중주는 독일계 후기낭만실내악의 대표 레퍼토리로 손색이 없다. 교향곡 5번과 6번 사이에 완성된 현악오중주는 5대의 악기로 교향곡의 스케일을 표현해낸 작품으로 특히 느린 3악장은 교향곡들의 아다지오에 버금가는 감동을 안겨준다. 현악사중주는 바흐와 슈베르트에 대한 작곡가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고전적인 느낌의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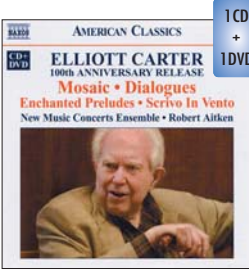
8.559306
코릴리아노: 바이올린소나타, 레드바이올린 카프리스 외
이다 비엘러(vn)
니나 치티맨(pf)
코릴리아노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레드 바이올린 카프리스'는 자신이 음악을 맡았던 영화 '레드 바이올린'의 테마를 변주곡 형태로 재가공한 작품이다. 영화에 삽입되었던 '샤콘느'도 함께 수록되었다. 바이올린소나타는 그의 초기대표작으로 두 악기의 화려한 인터플레이가 돋보이는 마지막 악장이 인상적이다. '오스티나토에 기초한 환상곡'은 베토벤의 교향곡 7번의 2악장의 테마를 응용하여 완성한 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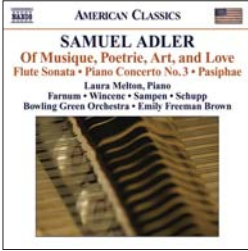
8.570486
하이드:
3개의 오르간협주곡, 2개의 하프시코드협주곡
하랄트 호렌(org), 케틸 하우그잔트(cemb)
헬무트 뮐러-브뤼hl/ 쾰른 챔버
하이드의 건반협주곡들은 생기발랄한 바깥 악장들이 서정적인 느린 악장들을 감싸고 있는 고전협주곡 양식의 전형화를 보여준다. 오르간협주곡들은 헨델과 같은 바로크거장들의 그것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하프시코드협주곡들은 JC 바흐가 보여준 우아한 로코코양식을 연상케 한다. 각각 쾰른음악원과 프랑크푸르트음악원의 교수들인 케틸 하우그잔트와 하랄트 회렌이 하프시코드와 오르간을 분담하였다.



8.570798
비발디:
바순협주곡 Vol.5 (RV.466, 469, 473, 491, 496, 497)
티마슈 벤코치(bn)/ 벨라 드라호스
니콜라스 에스테르하지 심포니아
다양한 악기들을 위해 500편 이상의 협주곡을 남겼던 비발디. 저음역을 보조하는 악기였던 바순 역시 그의 손길을 거쳐서 화려한 독주악기로 거듭났다. 헝가리의 대표적인 바순주자이자 현재 이반 피셔가 이끄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수석을 맡고있는 티마슈 벤코치의 눈부신 기교가 비발디의 쾌활한 악상을 한껏 돋보이게 한다.



8.559614
카터: 탄생 100주년 기념음반
(모자이크, 다이알로그, 피그먼트 1,2번 외)
로버츠 애이트킨/ 뉴 뮤직 콘서트 앙상블
올해 100번째 생일을 맞은 엘리엇 카터. 그의 탄생 100주년 기념음반이 출시되었다. 대부분의 수록곡이 작곡가가 90년대 이후에 완성한 최근작들로 백수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변함없는 그의 창조력을 실감하게 된다. 함께 수록된 DVD에는 카터의 음악세계에 관한 22분 분량의 다큐멘터리와 더불어 각각 96세와 97세에 완성한 최근작들인 '다이알로그'와 '모자이크'의 콘서트 실황 영상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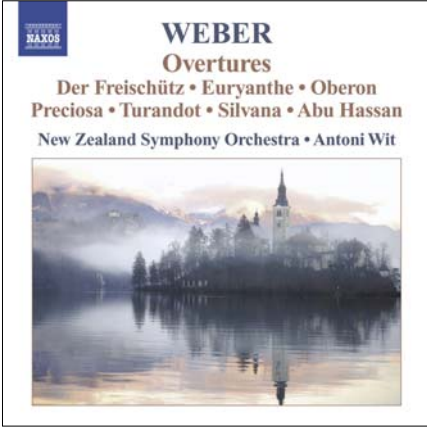
8.559602
애들러: 음악 시 예술 그리고 사랑, 플루트소나타, 피아노 협주곡 3번 외
로라 멜튼(pf), 캐롤 윈첸크(fl) 외/ 에밀리 프리먼 브라운/ 불링 그린 필하모니아
독일 출신의 유대계 작곡가인 사무엘 애들러는 400여 편의 작품과 교육활동을 통해 미국 음악계의 모든 영역을 누렸던 대표 작곡가의 한 사람이다. 피아노협주곡 3번, 플루트소나타, 연가곡 '음악, 시, 예술 그리고 사랑', 화려한 음향효과를 담은 타악 작품인 '파시파에', 각각 세 피아니스트와 네 작곡가에게 헌정한 피아노독주곡인 '3개의 피아노전주곡'과 '4개의 작곡가 초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수록하였다.



8.559247
수자:
아메리카 퍼스트, 대통령 폴로네이즈, 골드 주빌리 행진곡 외
키스 브리언
영국 왕립 포병 군악대
'행진곡의 왕' 필립 수자의 관악밴드를 위한 작품 시리즈의 7번째 음반. 장대한 '대통령 폴로네이즈', 요한 슈트라우스의 왈츠를 모델로 한 '인탈리오 왈츠', 친근한 미국 민요 선율들을 엮은 '아메리카 퍼스트', 작곡가의 대표곡 중 하나인 '골든 주빌리 행진곡', 전형적인 군악대용 작품인 '소총연대 행진곡', '해군 예비군 행진곡', '흑마 기병대 행진곡' 그리고 '하풍군행진곡', '세리던의 승마', '의회 행진곡' 등을 수록.



8.572095
트베이트:
목관을 위한 작품들
비아르테 엔에세트
노르웨이 왕립 해군 군악대
노르웨이 작곡가 게이르 트베이트의 탄생 100주년 기념 음반. 나디아 블랑제의 제자였던 그는 노르웨이 하당거 지역의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정교하면서도 서정적인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완성시켰다. 소피아토리 심포니아, 소피아토리 심포니에타를 비롯한 관악앙상블을 위한 오리지널 작품들과 관현악작품 '100개의 하당거 선율'의 관악앙상블용으로 편곡 중 2,4,5번 모음곡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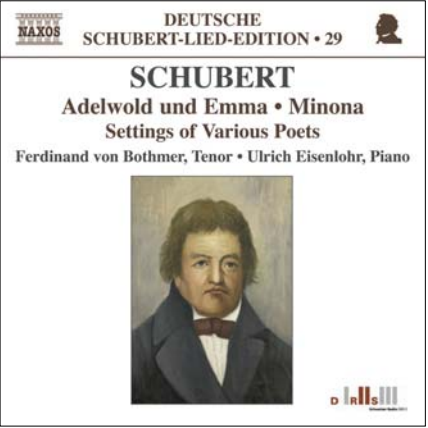
8.570296
베버:
서곡(마탄의 사수, 오베론, 오이리안테, 아부하산 외)
안토니 비트/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고전시대의 정형미와 낭만시대의 풍부한 서정을 접목시켰던 베버의 극 음악들은 바그너와 같은 후기 낭만작곡가들에 큰 영향을 끼쳤다. 본 음반에는 유명한 '마탄의 사수'와 비교적 널리 알려진 '오베론', '오이리안테', '아부하산' 외에도, '유벨서곡', '실바나', '프레치오사', '영혼의 지배자', '페터 슈울과 그의 이웃들'과 같은 생소한 서곡들, 그리고 극 부수음악 '투란도트'의 서곡과 행진곡이 수록되었다.



8.559351
스미스:
바이올린소나티나, 피아노소나타, 비올라소나타 외
제프리 그로스만(pf)/ 사라 달링(vn & va)
미국 작곡가 렐랜드 스미스는 컴퓨터를 창작활동에 적극 도입했던 작곡가로 최초의 음악 기보 소프트웨어인 SCORE의 개발자이기도 하다. 음반에 수록된 6개의 바가텔(1971년 출판)은 컴퓨터로 악보를 완성한 최초의 작품이기도 하다. 바이올린소나티나, 비올라소나타, 피아노소나타, 간주곡과 카프리치오, 무반주 비올라를 위한 모음곡,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콘서트 소품 등의 다양한 실내악 작품들을 수록.



8.570314
라인베르거:
오르간소나타 17, 18번, 모놀로그, 전주곡과 푸가
볼프강 퀴브잠(org)
라인베르거는 다양한 장르에 걸쳐 작품을 남겼지만, 낭만시대 독일 오르간음악의 대표 작곡가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그가 남긴 20개의 오르간소나타는 화려한 기교와 더불어 '악기들의 왕' 다윈 오르간의 장엄한 위용을 드러내는 작품들이다. 그 중 17번과 18번이 수록되었으며, 바흐의 마태수난곡에 사용된 코랄선율에 기초한 6개의 모놀로그와 역시 바흐의 그림자를 느끼게하는 전주곡과 푸가가 함께 수록되었다.



8.570838
슈베르트:
가곡 Vol.29 (위로, 부친살해범, 저녁노래, 아침노래 외)
페르디난트 폰 보트머(te)
율리히 아이젠로어(pf)
베렌라이터 신 슈베르트에디션에 의한 낙소스의 슈베르트 리트 시리즈의 29번째 음반. 작곡가의 리트 중 가장 긴 작품인 25분 길이의 대작 '아델볼트와 엠마', 아버지가 자신의 애인을 살해한 화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인을 다룬 극적인 작품 '미노나', 제목 만큼이나 음울한 작품인 '부친살해범' 등의 드라마틱한 리트들을 오페라와 리트 양면에서 맹활약중인 독일의 신에테너 폰 보트머의 강렬한 음성으로 수록하였다.



8.570492-93
로만:
12개의 플루트소나타
베레나 피셔(f)/ 클라우스-디터 브란트(vc)
레온 베르벤(cemb)
바로크 시대에 이름이 알려진 몇 안되는 스웨덴 작곡가인 요한 로만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을 고루 거치면서 각 나라의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체득하였다. 그가 남긴 12개의 플루트소나타들은 우아한 갈랑 스타일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바로크적인 아취와 전고전시대의 정형미가 적절히 어우러진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다. 무지카 안티쿠아 쉐르의 주축 멤버들이었던 세 연주자들의 정교한 앙상블이 돋보이는 음반.



8.570504
빌라-로보스:
연습안내곡(guia pratico) 10, 11, 어린이모음곡 1,2번 외
소니아 루빈스키(pf)
20세기 라틴 클래식을 대표하는 브라질 작곡가 빌라-로보스. 그의 피아노작품시리즈의 8번째이자 마지막 음반. 교습용 작품인 연습안내곡(Guia Practico) 10, 11권과 브라질 동요를 토대로 다양한 악기들을 위해 완성한 작품인 연습안내곡 Vol.1 중에서 작곡가가 피아노독주곡으로 편곡한 작품들을 함께 수록하였다. 이외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소품집인 어린이모음곡 1,2권, 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0957
하지다키스:
피아노작품집(작은조개껍질을 위하여, 이오니아모음곡 외)
다나에 카라(pf)
마노스 하지다키스는 60년대를 풍미했던 인기곡이었던 영화 '일요일은 참으세요'의 주제가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작곡가다. 그는 정통 클래식 작곡가이기도 했다. 그리스 전통춤에 기반을 둔 '하얀 조개껍질을 위하여', 향수를 머금은 전통가요 레베티카들을 편곡한 '6개의 유행화', 흥겨운 분위기의 '이오니아 모음곡', 장엄한 '리드물로지' 등 그리스 전통음악의 현대화에 힘썼던 이 작곡가의 음악스타일을 만날 수 있다.



8.570171-72
Classical chill - ultimate collection various artists
그리고: 아침정경, 솔베이의 노래, 그대를 사랑해, 자장가, 델리머스: 봄의 첫 빠꾸기 소리, 강가에서, 드뷔시: 아라베스크, 아마넷 머리의 소녀, 크라이슬러: 흑인영가선율, 힌두노래, 인디언의 탄식, 안단테 칸타빌레, 본 윌리엄스: 종달새의 비상, 글린카: 야상곡, 스벤젠: 로망스, 예메펠트: 자장가, 사타: 집노페디, 알프벤: 엘레지, 루빈시타인: 멜로디, 그레인저: 아일랜드선율 등 휴식을 위한 감미로운 선율들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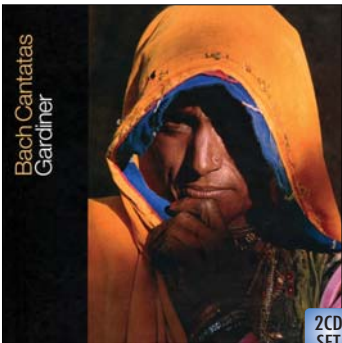


8.503400
하이드: 교향곡 전집 various artists
2009년 하이드 서거 200주기를 기념하여 낙소스에서 선보이는 하이드 교향곡전집 박스 세트. 기존의 104곡 외에도 105, 107, 108번의 3곡까지 포함한 명실상부한 전집. 파트릭 갈르와/신포니아 핀란드, 헬무트 뮐러-브뤼/뮐른 챔버, 케빈 말론/토론토 챔버, 벨라 드라호스/니콜라 에스테르하지 신포니아 & 스웨덴 챔버, 니콜라스 워드/노던 챔버, 배리 워즈워드/카펠라 이스트로폴리타나가 분담하여 완성하였다.



Soli Deo Gloria [SD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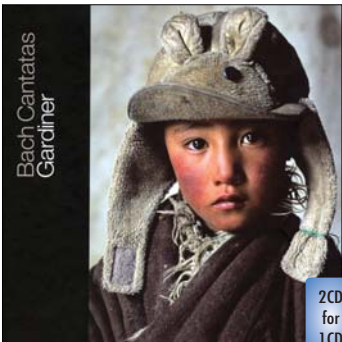
www.solideogloria.co.uk



SDG 147
Bach Cantata Vol.5
삼위일체후 8번째와 10번째 주일을 위한 칸타타들
178 Wo Gott der Herr nicht bei uns h?lt (주 하나님은 다른 곳에)
136 Erforsche mich, Gott, und erfahre mein Herz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45 Es ist dir gesagt, Mensch, was gut ist (사람들이여, 너희들에게 좋은 일을)
46 Schauet doch und sehet, ob irgendein Schmerz (보라, 고통이 어디 있는가를)
101 Nimm von uns Herr, du treuer Gott (주 진실한 하나님이며)
102 Herr, deine Augen sehen nach dem Glauben! (주여, 당신의 눈은 믿는 자를)

조안 룬(sop)/ 로빈 타이슨, 다니엘 테일러(alt)/ 크리스토프 겐츠(te)/ 브린드리 세라트, 고틀트 슈바르츠(bass) /몬테베르디 합창단/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츠/ 존 엘리엇 가디너

바흐의 가장 원숙한 칸타타 작품들에 대한 뛰어난 연주들 - 그라모폰 2008년 12월호삼위일체절 이후 8번째와 10번째 주일을 위한 칸타타들을 수록한 음반. 2000년 8월 독일 렌즈부르크와 브라운슈바이히에서 각각 녹음된 공연실황들이다. 강렬한 도입합창이 인상적인 BWV178에 이어서 희망과 믿음이 스며있는 BWV136과 45가 이어진다. BWV136의 시작을 알리는 확장된 푸가 합창에서는 바흐의 정교한 음화기법을 확실히 하며, BWV45에서는 담대하고 기교적인 베이스 아리아 'Es Werden viele-'에 주목하게 된다. BWV46에서는 예루살렘의 몰락과 복원을 생생하게 표현되었으며, BWV101과 102에서는 분노와 자비라는 하나님의 상반된 이미지를 만나게 된다. 특히 BWV101은 루터의 독일식 주기도론 선율에 기초하였다.



SDG 150
Bach Cantata Vol.17
신년일을 위한 칸타타들 & 새해 첫 주일을 위한 칸타타들
143 Lobe den Herrn, meine Seele II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41 Jesu, nun sei gepreiset (예수여, 찬양을 받으소서)
16 Herr Gott, dich loben wir (우리 주 하나님이며, 당신을 찬양합니다)
171 Gott, wie dein Name, so ist auch dein Ruhm (하나님, 당신 이름과 영광)
153 Schau, lieber Gott, wie meine Feind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적을)
58 Ach Gott, wie manches Herzeleid II (아, 하나님, 마음의 고통이 심하십니까)

루스 홀튼(sop)/ 루시 발라드, 샬리 브루스 페인, 찰스 험프리(alt)/ 제임스 질크리스트(te)/ 피터 하비(bass)몬테베르디 합창단/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츠/ 존 엘리엇 가디너

신년일과 새해 첫 주일을 위한 칸타타들을 함께 담은 시리즈의 최신 발매작. 여섯 칸타타 모두 2000년 1월 1,2일 베를린의 겐트마네 교회에서의 공연실황을 수록한 것이다. 암전한 분위기의 BWV143가 끝나면, 장대한 스케일의 도입합창과 함께 BWV41이 이어진다. 테너 아리아 'Woferne du den...'은 바흐 종교성악곡의 빛나는 보석들 중 하나다. 아담한 규모의 BWV16에서는 합창과 함께 펼쳐지는 베이스 아리아 'Lasst uns jauchzen'"에 주목하게 된다. 기쁨에 넘치는 테너 아리아 'Herr, so wit die'"와 장대한 장엄한 마지막 코랄 'Lass un das Jahr'가 인상적인 BWV171이 CD1의 대미를 장식한다. CD2에는 새해 첫 주일을 위한 2개의 칸타타가 수록되었다. 영적전투에서의 승리를 독려하는 에너지 넘치는 작품인 BWV153과 펄박받는 영혼(소프라노)과 수호천사(베이스)와의 대화형식으로 구성된 BWV58이 그것이다.



Proprius

www.proprius.com



PRCD2045
지구인(그리그, 빅토리아, 린드베르크,니스테트 등의 합창음악)
솔비에그 오그렌/ 스텔라 합창단

베스트셀러 합창 음반들로 사랑받아온 스웨덴의 오디오파일 레이블 프로프리우스에서 또 하나의 매력적인 합창음반을 선보였다. 르네상스 작곡가 빅토리아의 대표 모테트 'O Magnum Mysterium'에서부터 크누트 뉴스테트와 트론 쿠베르노 등의 스웨덴 현존 작곡가들의 종교합창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에 걸친 합창음악의 진수를 만날 수 있다. 그리그의 'Ave Maris Stella', 헨닝 슐메로의 걸작 합창곡 '그레고리오의 3개의 상념', 트론 쿠베르노의 'Corpus Christi Carol' 등을 수록.



Wigmore Hall Live S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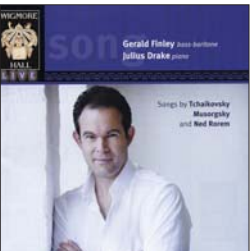
www.wigmore-hall.org.uk



WHLive0024
브람스: 8개의 가곡, 슈만: 여인의 사랑과 생애, 4개의 괴테 가곡
로레인 헌트 리버슨 (ms)
줄리어스 드레이크(pf)

2006년 유방암으로 신들의 길지 않은 생을 마감했던 미국의 메조소프라노 로레인 헌트 리버슨. 본 신보는 1999년 10월 4일의 리사이틀 실황으로 슈만의 연가곡 '여인의 사랑과 생애'와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의한 4개의 가곡', 그리고 브람스의 '8개의 가곡' Op.57로 일한 레퍼토리들로 채워졌다.

위대한 아티스트의 빛나는 추억 -The Sunday Times



WHLive0025
차이코프스키: 가곡, 무소르스키: 죽음의 노래와 춤 외
제랄드 핀리(br)
줄리어스 드레이크(pf)

차이코프스키 '다만 동경을 아는 자만이', 무소르스키 '죽음의 노래와 춤' 포함. 2007년 10월 18일 위그모어홀에서의 리사이틀 실황. 유명한 '다만 동경을 아는 자만이'를 비롯한 차이코프스키의 가곡들, 무소르스키의 '죽음의 노래와 춤', 그리고 미국 현대 작곡가 네드 로렐의 드라마틱한 연가곡 '전쟁장면' 등 핀리의 드라마틱한 연출력이 돋보이는 개성적인 레퍼토리들을 담고 있다.



Dynamic

www.dynamic.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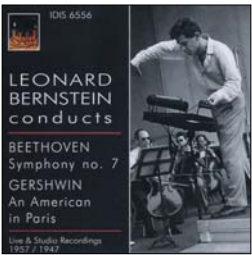
CDS 591/1-2
타르티니: 바이올린협주곡 Vol.15
조반니 구글리엘모/ 라르테 델 아르코

타르티니 바이올린협주곡 시리즈의 15번째 음반. '악마의 트릴'로 유명한 주제페 타르티니는 바로크시대 이탈리아의 바이올린악파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대작곡가였다. 스스로 바이올린의 명수였으며, 명저 <화성론>을 저술했을 정도로 음악이론에도 해박했다. 일생에 걸쳐 200여곡의 바이올린협주곡을 남겼다고 전해지며, 그중 125곡 정도가 지금까지 전해져 온다. 본 음반은 이탈리아의 실력과 시대악기 연주단체인 라르테 델 아르코가 진행 중인 타르티니 바이올린협주곡 시리즈의 15번째의 음반으로 수록된 8개의 협주곡 모두가 최초로 레코딩되는 것들이다. 바이올린 파트의 세 멤버들이 번갈아가며 솔로를 분담하고 있으며, 실내악 규모의 정교한 앙상블로 이탈리아 바로크 음악의 해맑은 선율과 단아한 아름다움을 한껏 강조하였다.



CDS 612
Play me my songs
엘리사 프란제티(sop)/ 앙상블 일 팔코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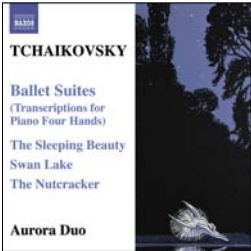
18세기 영국의 매력적인 바로크 음악들. 앙상블 일 팔코네는 저명한 바로크 바이올리니스트 파브리치오 치프리아니가 중심이 되어 결성된 이탈리아의 시대악기 연주단체이다. 이들의 신보는 18세기 영국에서 활동했던 여러 작곡가들의 작품을 다루었다. 이탈리아 출신의 제미니아니, 보논치니, 바르산티, 그리고 독일의 헨델은 모두 영국에서 자신들의 캐리어의 황금기를 장식하였던 인물들이다. 이외에도 영국 토종 작곡가들인 존 에클스와 찰스 아비존의 작품들도 함께 수록되었다. 바이올린과 소프라노를 위한 보논치니의 칸타타와 존 에클스의 극부수음악 'The Mad Lovers'는 최초로 레코딩되는 작품들이다. 스코틀랜드 민요 선율을 차용한 제미니아니의 성악곡들과 헨델의 영국 노래 HWV228의 일부를 노래하는 소프라노 엘리사 프란제티의 청아한 음성이 매력적이다.



IDIS 6556
베토벤: 교향곡 7번, 거쉰: 파리의 아메리카인
레너드 번스타인/ 보스턴 심포니 & RCA 빅터 오케스트라

젊은 시절 번스타인의 재능과 기백을 담은 음반. 보스턴 심포니를 지휘한 베토벤의 교향곡 7번은 그가 뉴욕 필의 음악감독에 임명되던 해인 1957년의 실황이다. 열악한 음질이 안타깝지만, 약동하는 리듬의 향연과도 같은 이 작품의 특징을 유감없이 표현해낸 번스타인의 천부적인 감각이 충분히 느껴진다. 특히 마지막 악장의 휘몰아치는 절주는 역시 번스타인의 솜씨임을 확실히 증명해 준다. 거쉰을 대표하는 관현악곡인 '파리의 아메리카인'은 번스타인이 미국 음악계의 희망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던 무렵인 1947년도에 RCA를 위해 완성한 스튜디오 녹음을 옮긴 것이다. 이 작품에 담긴 미국적인 색채를 이만큼이나 맛깔스럽게 뽑아낼 수 있는 지휘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Naxos Best



Naxos 8.570418
차이코프스키: 3대 발레 모음곡
(네 손을 위한 피아노 편곡)
아우로라 듀오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은 로맨틱 발레의 대명사로 군림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차이코프스키는 이들이 콘서트용 모음곡은 물론, 네 손을 위한 피아노 편곡으로도 자주 연주되기를 원했고, 몇몇 피아니스트들이 이에 도전하였다. 백조의 호수는 에두아르도 랑거, 호두까기 인형은 슈테판 예시포프가 편곡하였고,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라흐마니노프의 편곡을 작곡가가 직접 보완하였다.



Naxos 8.557250
복스테후데:
실내악 작품 전집 Vol.3
존 홀로웨이, 우르솔라 바이스
(vn)/ **압 테르 린덴(viol)/ 라스 울릭 모르텐센(cemb)**

앞서 두 장의 음반으로 국내 바로크 애호가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존 홀로웨이와 동료들의 복스테후데 실내악 시리즈의 세번째 음반이 등장하였다. 작품번호가 붙지 않은 6곡의 소나타를 수록한 것으로, 느린 악장의 장엄함, 능숙한 푸가 기법, 유려한 선

율과 우아한 춤곡악장 등 작곡가의 장점들로 가득 채워졌다. 2008년 3월 21일 존 홀로웨이의 내한 공연을 기다리는 많은 팬들에게 반가운 선물이 될 것이다.



Naxos 8.570341
칠레 기타 음악(콘트레라스, 살리나스, 레스투치, 산체스 외)
호세 안토니오 에스코바르
(guitar)

자국의 독특한 전통음악과 모던 클래식 작곡기법에 영향을 받은 신세대 칠레 작곡가들의 다양한 형식과 감각적인 리듬에 기반을 둔 독창적인 기타 작품들을 수록하였다. 칠레 현대음악계의 좌장격인 비올레타 파라의 1961년작 'Anticuecas'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2000년대에 완성된 최신작들로, 아르헨티나 브라질과는 또 다른 이 나라 특유의 색채를 맛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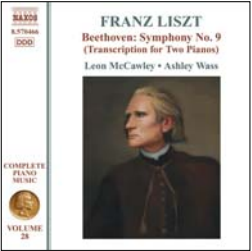
Naxos 8.570554
고다르: 바이올린협주곡 2번, 콘체르토 로맨틱, 시적풍경
클로에 한슬립(vn)/ 커크 트레버
/ 슬로바키아 국립 필하모니
지금은 오페라 '조슬랭' 중의 자장가로만 기억되는 이름이지만,

고다르는 바이올린의 명인이자 작곡가로 낭만시대를 풍미했던 인물이다. 그의 두 협주곡들은 슈만이나 멘델스존의 그림자가 짙게 느껴지는 전형적인 로맨틱 음악의 특징을 보여준다. 서정적인 선율로 가득한 관현악곡 '시적풍경'이 함께 수록되었다. 아담스의 협주곡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던 클로에 한슬립의 두 번째 낙소스 음반.



Naxos 8.557042
보테시니: 더블베이스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 Vol.2
조엘 콰링턴(db)/ 앤드류 버래시
코(pf)

더블베이스의 파가니니'로 일컬어졌던 보테시니. 그의 작품들은 독주악기로서의 더블베이스의 뛰어난 가능성을 보여준다. 목직 한 저음으로 감상하는 G 선상의 아리아나 쇼팽의 연습곡 편곡이 색다르며, 클라리넷과 더블베이스 이중주 역시 참신하다. 선율미와 초절교가 어우러진 '텐다의 배아트리체'에 의한 환상곡, 선율의 아름다움이 각별한 콘체르토 2번 등등 더블베이스의 매력력을 만끽하게 되는 음반.



Naxos 8.570466
리스트: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편곡)
리온 맥컬리 & 애슐리 와스(피아노)
리스트는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

에 대한 피아노 편곡을 2종류 남겼다.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편곡은 한 대를 위한 편곡에 비해 원곡의 풍성한 텍스처를 보다 충실히 건반 위에 옮겨 놓았다. 베토벤 콩쿠르 1위와 리즈 콩쿠르 2위에 빛나는 영국의 기대주 레온 맥컬리와 낙소스의 간판 피아니스트 애슐리 와스의 유기적인 앙상블이 이 걸출한 편곡작품을 더욱 빛나게 만든다.



Naxos 8.570397
보테시니: 바이올린과 더블베이스를 위한 그랑 듀오 콘체르토 외
토마스 마틴(더블베이스) 외/ 잉글리시 체임버/ 앤드류 리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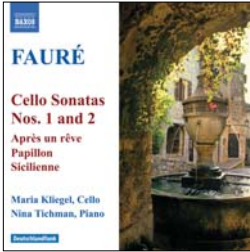
보테시니는 더블베이스의 파가니니로 불리던 인물이다. 그랑 듀오 콘체르토는 원래 두 대의 더블베이스를 위한 작품이지만 파가니니의 제자 시보리가 더블베이스와 바이올린이라는 독특한 조합을 위해 편곡한 버전을 수록하였다. 독주악기로서의 더블베이스의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랑 콘체르토 F장조와 더블베이스와 클라리넷의 색다른 어울림을 위한 듀엣도 등을 수록. ASV음원의 재발매 음반.



Naxos 8.570735
텔레만, JS 바흐: 오보에 다모레 협주곡집

토마스 스테이시(오보에 다모레)/ 토론토 챔버 오케스트라/ 케빈 말론

오보에다모레는 오보에와 잉글리시 혼의 중간 음역을 담당하는 악기다. '사랑의 오보에'라는 악기이름대로 부드러운 음색을 자랑한다. 현재 뉴욕 필의 잉글리시 혼 주자인 토마스 스테이시가 JS 바흐와 텔레만의 오보에다모레 협주곡 두 곡씩을 녹음하였다. 바흐의 BWV1053과 1055는 현재 하프시코드협주곡 형태로 전해지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두 작품의 원형이 오보에다모레 협주곡이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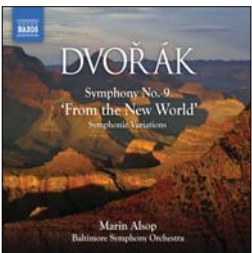
Naxos 8.570709
콜라우: 피아노소나타 Op.59 & 피아노소나타 Op.20
예니 안도(pf)

베버와 동시대에 활약했던 콜라우는 작곡가와 피아니스트로 활약했으며, 뛰어난 피아노교사였다. 교습목적으로 작곡된 3곡의 소나티나 Op.20은 모차르트를 연상시키는 쾌활한 악상이 매력적인 작품들로 특히 1번은 피아노교습생들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연주해봤을 친근한 작품이다. 3편의 소나타로 구성된 Op.59 역시 어렵지 않은 기교와 간단명료한 구성이 돋보인다. 낙소스의 간판 예니 안도의 최신 녹음.



Naxos 8.557889
포레: 첼로소나타 1,2번
마리아 클리젤(vc)
니나 티호만(pf)

포레가 완성한 두 첼로소나타는 작곡가의 천부적인 선율감각과 우아한 서정성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작품들이다. 1차 대전 중에 완성한 1번은 유장한 2악장과 현란한 3악장의 대비가 돋보이는 작품이며, 2번의 경우는 자신의 작품 '장례송가'를 편곡한 2악장이 인상적이다. 인기 첼로소품인 '엘레지'와 유명한 가곡 '꿈꾸고 난 뒤'의 첼로편곡, 극부수음악 '펠리아스와 멜리장드' 중의 '시실리안느' 등이 함께 수록되었다.



Naxos 8.570714
드보르작: 교향곡 9번 '신세계', 교향적 변주곡
마린 알소프/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

마린 알소프는 새롭게 음악감독에 취임한 볼티모어 심포니와 더불어 드보르작의 후기 3대 교향곡을 실황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가장 유명한 교향곡 9번 '신세계'로 첫 시작을 알렸다. 2007년 6월의 실황을 담은 것으로 작품의 호방한 기상을 큰 스케일로 펼쳐나가는 알소프의 해석과 볼티모어 심포니의 박력 넘치는 연주가 어우러진 쾌연을 들려준다. 작곡가의 중요 관현악소품인 교향적 변주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Naxos 8.557900-01
모차르트: 가곡전집
루트 지작(sop), 로타르 오디니
우스(te), 울리히 아이젠로어(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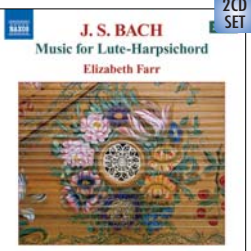
모차르트는 다양한 성격의 가곡들을 다수 남겼다. 지인들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개인적인 작품이 있는가 하면, 프리메이슨 행사를 위한 노래나 황제의 외국 원정을 기리는 찬가 등의 공적인 성격을 지니는 작품들도 존재한다. 돈조반니의 세레나데를 연상케 하는 만돌린 반주의 가곡 '오라 사랑하는 지터', 목가풍의 '마법사', 드라마틱한 '루이자가 연인의 편지를 불태울 때', 달콤쌔스름한 '제비꽃' 등이 특히 유명하다.



Naxos 8.570482
하이트: 호른협주곡, 트럼펫협주곡, 하프시코드협주곡 외
드미트리 바보노프(hrn), 위르겐 슈스터(trp)/ 헬무트 뮐러-브릴/ 필론 체임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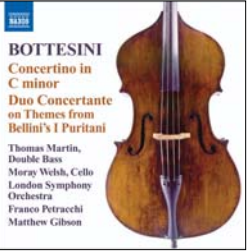
고금의 트럼펫협주곡들 중 가장 유명한 하이트의 협주곡과 독주자의 뛰어난 기교를 요구하는 위대한 것으로 추정되는 하프시코드협주곡 Hob18-2, 작곡가의 유일한 이중협주곡인 바이올린과 하프시코드를 위한 협주곡(본 음반에서는 포르테피아노를 사용)을 함께 수록. WDR 심포니의 솔로 위르겐 슈스터와 베를린 콘

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수석 드미트리 바보노프가 독주를 맡음.



Naxos 8.570470-71
JS 바흐: 류트-하프시코드를 위한 음악들(BWV995-1000, 990,1006)
엘리자베스 파르(lute-harpsich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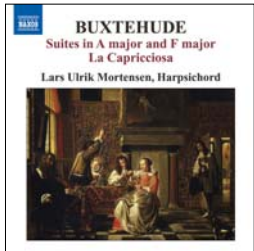
류트-하프시코드는 거트현을 사용한 건반악기로 하프시코드에 비해 부드러운 음향과 류트에 비해 한층 폭넓은 음역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악기다. 바흐는 2대의 류트-하프시코드를 보유했다고 전해진다. 본 음반에서는 바흐가 류트를 위해 작곡 또는 편곡한 작품들을 류트-하프시코드로 연주하였다. 악기 장인 키스 힐이 이 악기에 대한 바흐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여 제작한 악기를 연주에 사용하였다.



Naxos 8.570398
보테시니: 더블베이스협주곡, 엘레지 1번, (알리바바) 서곡 외
토마스 마틴(db)/ 매튜 김슨/ 런던 심포니

더블베이스의 파가니니'로 불렸던 보테시니는 자신의 악기를 위한 작품들 외에도 다수의 오페라를 완성하기도 했다. 본 음반에서는 그의 오페라들인 '에로와 레안드로', '밤의 악마', '알리 바바' 3작품의 서곡들과 더불어 더

블베이스협주곡으로는 가장 유명한 작품인 협주곡 C단조, 벨리니 '청교도' 선율에 의한 첼로와 더블베이스를 위한 듀오 콘체르탄테 등이 수록되어있다. ASV음원의 재발매 음반.



Naxos 8.570581
북스테후데: 하프시코드 모음곡 A장조, F장조, 칸초네타, 전주곡 라스 올릭 모르텐센(cemb)

존 홀로웨이와 함께 했던 북스테후데의 실내악시리즈로 큰 화제를 낳았던 덴마크의 정상급 하프시코드주자 모르텐센이 들려주는 북스테후데의 세 번째 건반작품집. 다카포의 음원이 낙소스를 통해 재발매된 것으로, 두 편의 춤곡모음곡, 정교한 대위법을 보여주는 칸초네타, 바흐의 골드베르크변주곡을 예견하는 듯한 작품인 32개의 파르티타(변주)로 구성된 '라 카프리카치오사' 등을 수록.



Naxos 8.570800
바치니: 바이올린을 위한 초절기고 소품들 (요괴들의 춤 외) 클로에 한슬립(vn)/ 카스파르 프란츠(pf)

안토니오 바치니는 파가니니의 인정을 받았던 당대의 대표적인 비르투오조로, 자신의 뛰어난 기교를 과시하기 위한 화려한 소품들을 다수 완성하였다. '요괴들의 춤'은 베히게로프의 연주를 통

해 유명해진 작품으로, 한슬립 역시 베히게로프에 뒤지지 않는 완성도 높은 연주를 들려준다. 화려함과 서정을 겸비한 '아라스의 종', '서정적인 3소품', '살롱 풍의 두 소품', '소나타 형식의 3소품', '2개의 대연습곡' 등을 수록.



Naxos 8.570399
보테시니: 람메르루치아 판타지, 알라 멘델스존, 엘레지 1,2번 토마스 마틴(db)/ 안소니 할스테드(pf)
 더블베이스의 파가니니'로 명성을 날렸던 보테시니는 이 든중한 저음악기를 화려한 독주악기로 변모시켰던 장본인이다. 본 음반에는 더블베이스와 피아노를 위한 소품들이 수록되었다. 도니제르크변주곡을 예견하는 듯한 작품인 32개의 파르티타(변주)로 구성된 '라 카프리카치오사' 등을 수록.



Naxos 8.570499
L. 모차르트: 5개의 신포니아(장난감 교향곡 포함) 케빈 말론/ 토론토 챔버 오케스트라

한때 하이든의 작품으로 오해되었던 장난감 교향곡은 볼프강 아

마데우스의 아버지인 레오폴드 모차르트의 대표작이다. 명성에 비해 마땅한 음반이 드물었지만, 낙소스 18세기 교향곡 시리즈의 대표주자인 케빈 말론의 이 음반이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이다. 초기 고전 교향곡 특유의 단아한 정형미와 소박한 선율이 돋보이는 레오폴드의 다른 신포니아 4편도 함께 만날 수 있다.



Naxos 8.572113
돼지가 날 수 있다면 (어린이 합창단을 위한 20세기 음악들) 알렉산더 웰즈(pf)/ 로널드 콕스 / 뉴 런던 어린이 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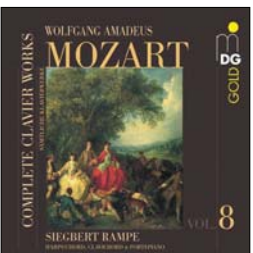
어린이들의 순수한 목소리를 위해 20세기 작곡가들이 완성한 다양한 합창곡들을 담은 음반. 각종 CF를 통해 너무나 유명해진 존 러터의 대표곡 <For the Beauty of the Earth>를 비롯, 브리튼, 본윌리엄스, 태브너, 맥스웰테이비스, 블리스, 베네트, 스캇트, 모 등의 친진난만한 작품들이 담겼다. 베네트의 <벌레 세상>, <새장>과 같은 묘사적인 작품이나 스캇트의 악살스런 <돼지가 날 수 있다면> 등이 눈길을 끈다.

MDG B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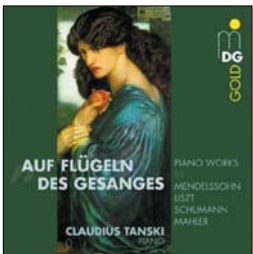
301 0460-2
플레엘: 윈드 세레나데 콘소르티움 클라시쿰

파파 하이든의 제자였던 이그나츠 플레엘은 특히 실내악 분야에서 스승 못지 않은 뛰어난 작품들을 다수 남겼다. 본 음반에 수록된 각각 2편의 목관 8중주와 6중주를 위한 세레나데들은 콘소르티움 클라시쿰의 리더인 클뢰커가 재발견한 작품들로 이 음반이 이들 작품들의 최초 녹음에 해당한다. 이 세레나데들을 모차르트의 이름으로 출판하더라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력적인 작품들이다.



341 1308-2
모차르트: 건반 작품전집 vol.8 (타기행진곡 외) 지그베르트 람페(하프시코드, 클라비코드, 포르테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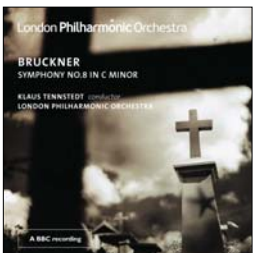
하프시코드, 클라비코드, 포르테피아노를 번갈아가며 모차르트의 피아노작품을 녹음 중인 지그베르트 람페의 모차르트 시리즈의 8번째 음반. 이번 신보에는 타기행진곡으로 유명한 피아노 소나타 KV331이 포함되었다. 1771년에 제작한 영국형 하프시코드의 또랑또랑한 사운드는 이 귀에 익은 작품을 한결 신선하게 전달해 준다. 포르테피아노로 연주하는 6개의 독일춤곡의 생기 발랄함도 각별하며, 클라비코드로 연주한 미뉴엣들과 건반소품들의 아기자기한 모양새도 매력적이다.



912 1489-6 (Hybrid-SACD)
노래의 날개 위에 (피아노로 연주하는 낭만가곡들) 클라우디우스 탄스키(피아노)

많은 연주자들이 자신의 리사이틀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 리트들을 연주곡으로 편곡 연주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리스트다. 본 음반에는 리스트가 편곡한 멘델스존의 '노래의 날개 위에'와 자신의 가곡 '로렐라이', 그리고 연주자 탄스키가 직접 편곡한 말러의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의 피아노버전을 함께 수록하였다. 슈만의 대표적인 낭만 레퍼토리인 환상곡 op.17도 함께 수록되었다.

LPO B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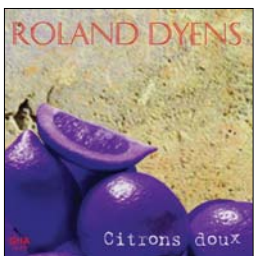


LPO 0032
브루크너: 교향곡 8번 (노바크 판본) 클라우스 텐슈테트/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브루크너의 교향곡 8번은 작곡가가 남긴 9편의 교향곡 중에서 정점을 이루는 대결작이다. 전형적인 브루크너 스케르초인 2악장, 종교적인 심원함을 담은 3악장, '코스크기병의 돌격'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호방함을 자랑하는 마지막 악장이 이상적으로 어우러진 작품이다. 본 음반은 1981년 로얄 페스티벌홀에서의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스튜디오에서보다 실연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소진시켰던 텐슈테트의 열정을 확인시켜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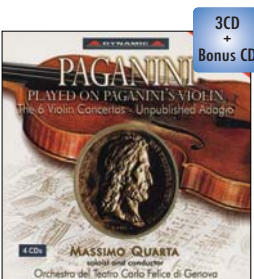
GHA Best



126.059
롤랑 디옹 Citrons Doux

이미 국내에서 가장 사랑받는 기타리스트로 자리매김한 롤랑디옹의 신보. 앨범 타이틀은 우리말로 달콤한 레몬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앨범에서는 앨범 타이틀에 걸맞게 유쾌하면서도 리드미컬한 그의 작곡 실력과 섬세하면서도 세련된 편곡 솜씨가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특히 최근 그의 자작곡 중에서 떠오르고 있는 Flying Wigs가 수록되어 있고 기타 편곡에서는 드디어 쇼팽의 피아노 작품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익히 그의 기타 편곡실력은 널리 칭송받고 있지만 디옹이 편곡한 쇼팽의 작품 가히 상상만으로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더해준다. 특히 올해 국내 연주회를 앞두고 있는 그의 천재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소중한 앨범이다. 클래식기타 애호가들의 필청음반.

Dynamic Best



CDS 450/1-4
파가니니: 바이올린협주곡 전곡 (1-5번, 그랜드 콘체르토) 마시모 콰르타(바이올린, 지휘)/제노바 카를로 펠리체 가극장 오케스트라

1991년 파가니니 콩쿠르 우승자인 마시모 콰르타가 독주와 지휘를 겸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협주곡 시리즈는 파가니니 전문 레이블로 유명한 다이아믹의 음반들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대표음반들이었다. 콰르타는 파가니니가 생전에 사용했던 바로 그 악기인 과르네리 '일 칸노네'를 제노바 시로부터 특별히 대여받아서 녹음에 임했고, 작곡가의 필사본에 기초하여 연주자 자신이 직접 오케스트레이션을 교정한 개정판 스코어를 사용하였다. 파가니니의 미발표작품인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아다지오의 세계최초 녹음현장을 기록한 비디오클립과 파가니니의 바이올린에 대한 여러 정보를 담은 멀티미디어 CD가 보너스로 제공된다.



CDS 555
파가니니: 기타를 위한 기리비치 전곡

아드리아노 세바스티안(guitar)

바이올린 비르투오조가 남긴 아름다운 기타 소품들. 1971년 이탈리아 정부가 작곡가의 자필 필사본을 구입하여 완벽히 복원함으로써 이 바이올린의 대가가 기타를 위한 작품도 다수 남겼음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1820년 기타를 위한 43곡의 기리비치(가벼운 습작형식의 소품)를 완성했던 것이다. 젊은 기타학도의 기교연마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선율로 채워져 있기에 감상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소품들이다. 파가니니의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작품 시리즈로 호평을 얻었던 이탈리아의 중견 기타리스트 아드리아노 세바스티아니가 연주를 맡았다.



CDS 152
파가니니: 현악사중주를 위한 4개의 노투르노,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6개의 듀엣 다르키 파가니니 사중주단, 브루노 피냐테(바이올린)/ 피노 브리아스코(기타)

바이올린 비르투오조의 대명사 니콜로 파가니니는 바이올린 독주가 중심이 되는 사랑스러운 실내악 소품들도 다수 작곡하였다. 4곡의 노투르노(야상곡)는 필드나 쇼팽의 피아노 작품에 뒤지지 않는 감미로운 선율과 평온한 서정을 담고 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 이중주로도 연주할 수 있는 곡이지만, 이 음반에서는 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노리티를 들려주는 현악사중주버전을 담았다. 바이올린과 기타는 파가니니가 가장 사랑했던 악기들이

다. 이 두 악기를 위해 완성한 6개의 이중주는 화려한 기교 이면에 감추어져있던 파가니니의 우아하고도 섬세한 감성을 잘 보여준다.

Proprius Best



PRSACD 2040 (Hybrid-SACD)
JS 바흐: 류트 모음곡, BWV 996, 997, 사론느
게오르크 굴리아스(guitar)
스페인 작품집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스웨덴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게오르크 굴리아스가 바흐의 류트 곡에 도전하였다. 류트 모음곡 BWV996과 997, 그리고 유명한 사론느를 녹음한 것으로, 연주자의 정연한 연주와 프로프리우스의 우수한 녹음이 탁월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 SA-CD.net에서 연주와 녹음 양쪽 모두에서 만점에 랭크되었으며, '바흐 애호가나 기타 애호가 양쪽 모두가 꼭 들어봐야할 음반'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Phoenix B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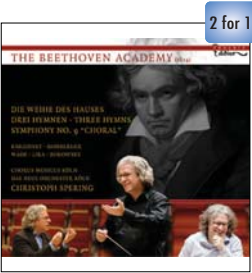


Phoenix 112
빈 궁정성당의 음악들
아이블러, 살리에리, 모차르트, 슈베르트, 폭스, 헤르벡 외
렌네케 루이텐(sop) 외/ 헬무트 프로사우어/ WDR 방송오케스트라와 합창단
15세기 막시밀리안 황제 집권기 이후 빈 궁정은 유럽을 대표하는 최고 작곡가들이 활동하던 음악의 성지였다. 본 음반에는 18/9세기 합스부르크왕조의 마지막 황금기 시절 빈 궁정에서 사용되었던 종교음악들이 수록되었다. 유명한 모차르트의 'Ave verum corpus'와 'Regina Coeli' 외에도 아이블러, 폭스, 헤르벡 등의 쉽게 접하기 힘든 아름다운 종교합창곡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살리에리의 두 작품 'Veni sancte spiritus'와 'De profundis'의 빼어난 아름다움은 그가 당대 최고의 작곡가였음을 입증하며, 스펙터클한 스케일을 보여주는 아이블러의 'Terra tremuit'도 놓칠 수 없는 트랙이다.



Phoenix 116
모차르트: 레퀴엠 & 미사 C단조
아를린 오제(sop), 토마스 크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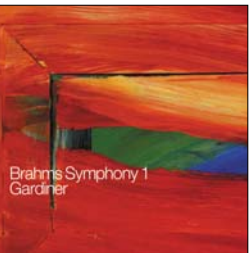
스토프(bass) 외/ 게리 베르티니/ 켈른 WDR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모차르트의 가장 유명한 종교절작 두 편을 함께 수록한 이 음반은 거장 게리 베르티니가 켈른 WDR 방송교향악단의 음악감독으로 재직시 남겼던 실황음원들을 음반화한 것이다. 1986년에 녹음된 미사 C단조에서는 많지 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많은 음악애호가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던 미국 출신의 명 소프라노 아를린 오제의 청아한 음성을 만날 수 있으며, 1991년에 녹음된 레퀴엠에서는 현재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바리톤 토마스 크바스토프의 젊은 목소리를 만날 수 있다. 두 작품 모두 최근 대세가 된 시대악기연주들에서 쉽게 맛보기 힘든 묵직한 박력과 확장된 스케일을 자랑한다.



Phoenix 107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헌당식서곡, 장엄미사 중 키리에, 크레도, 아누스데이 크리스토퍼 슈페링/ 다스 노이에 오케스트라
다스 노이에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오푸스 111 레이블을 통해 여러 고전/낭만 종교음악들의 명반을 완성했었던 슈페링이 참신한 기획의 음반 하나를 선보였다. 본 신보는 1824년 5월 7일 빈 궁정극장에서 있었던 베토벤 아카데미 당시를 충실히 재현한 것이다. 바로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이 세상에 첫 선을 보이는 순간이다. 수록곡들은 당시 아카데미에서 선보였던 레퍼토리를

인 '헌당식' 서곡, 장엄미사 중 3파트(키리에, 크레도, 아누스데이), 그리고 합창 교향곡이며, 연주 역시 당대의 악기와 연주스타일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SDG Best



SDG 702
브람스: 교향곡 1번, 운명의 노래, 장송곡 외
몬테베르디 합창단/ 존 엘리엇 가디너/ 낭만과 혁명 오케스트라
SDG를 통해 선보이는 존 엘리엇 가디너의 브람스 교향곡 시리즈의 제 1탄. 그라모폰 2008년 10월호 추천음반. 2007년 11월에 있었던 공연실황을 담은 것으로,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를 통해 강렬하게 각인되었던 '심포니스트로' 서의 가디너를 다시금 접하게 된다. "시리즈의 좋은 징조를 알리는 계이적인 연주. 엄청나게 극적인 이 연주는 힘이 넘치면서도 가식이 없다. 강력한 브람스 교향곡 1번으로, 함께 수록된 3편의 합창곡과 더불어 충분히 제대로 된 연주다."
- Richard Osborne 그라모폰 2008년 10월호



SDG 141
JS 바흐: 칸타타 Vol.3 (삼위일체 후 4,5번째 주일을 위한 칸타타)
몬테베르디 합창단/ 존 엘리엇 가디너/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츠

삼위일체 후 네 번째 주일을 위한 세 편의 칸타타(BWV24, 177, 185)는 2000년 첼트넘 페스티벌 중의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막달레나 코체나, 나탈리 스투츠망, 폴 애그뉴 등의 정상급 가수들의 열창이 돋보이는 연주다. 삼위일체 후 다섯 번째 주일을 위한 칸타타들은 청년 바흐가 한때 적을 두었던 도시인 뮐하우젠에서 녹음되었다. 4조의 별도의 기악그룹을 요구하는 바흐의 칸타타 중 가장 거대한 스케일의 작품인 BWV71 '하나님은 나의 왕'을 수록.

Dacapo Best



6,220570 (Hybrid-SACD)
모차르트: 플루트사중주(리코더 연주)
미칼라 페트리(rec)/ 카롤린 비트만(vn)/ 올라 우리요나(va)/ 마르타 수드라바(vc)
리코더의 여왕 미칼라 페트리가 모차르트의 플루트 사중주들에 도전하였다. 이 음반을 들으면 모차르트가 일반적인 플루트가 아닌 리코더를 위해 이 작품들을 완성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들이 것이다. 리코더의 청량한 음색과 모차르트의 천진한 악상들이 완벽한 시너지를 만들어낸다. 각 악기들의 사운드를 생생하게 포착해낸 뛰어난 녹음과 SACD

가 제공하는 입체음향이 연주의 진가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8,226904
줄리아니: 기타와 바이올린을 위한 듀오 콘체르탄테 외
김 쇼겐(vn)/ 라스 한니발(guitar)
마우로 줄리아니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빈에서 활동했던 고전/낭만 전환기의 음악가다. 작곡가인 동시에 첼로와 기타의 명인이었으며, 특히 후자를 위해 매력적인 작품들을 200여 곡이나 남겼다. 기타 반주에 바이올린 또는 플루트가 독주를 담당할 수 있는 이중주가 22곡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중 3곡의 중요작품들을 수록하였다. 기타와 바이올린이 다소곳이 주고 받는 사랑스런 선율이 음반전체를 가득 채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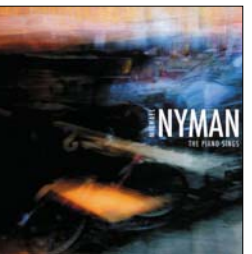
Wigmore Best



WHLive 0023
미에치슬라브 호르초프스키 99세 기념 리사이틀
베토벤: 템페스트소나타, 모차르트: 소나타 K.570, 슈만: 아라베스크 외
위대한 거장의 마지막 모습을 담

은 감동적인 실황음반. 호르초프스키는 파블로 카잘스, 아돌프 부슈 등의 역사적인 거장들과 함께 연주활동을 했던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은 연주자였다. 1993년 10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던 그는 생의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연주활동을 쉬지 않았다. 본 신보는 그의 나이 99세 되던 1991년의 실황으로 정식으로 발매된 최고령 연주자의 음반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따금 나타나는 더듬거림과 미스터리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한계를 초월한 노대가의 불굴의 정신을 담은 이 음반의 감동은 너무나도 크다.

MN Records Best



MNRC103
마이크리만: The Piano Sings 마이클리만(pf)
마이크리만의 작품들 중에서 서정적인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피아노 솔로 작품들만을 담은 베스트 음반. 칸느 그랑프리작 '피아노'의 사운드 트랙 중에서 국내에서도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작품들인 'The heart asks pleasure first'와 'Big my secret', 'Lost & Found' 외에도 영화 '안네 프랑크의 일기' 중의 'If', 'Why', 에단 호크와 우마 서먼이 주연한 할리우드 영화 '가타카' 중 'The Morrow', 'The Departure' 등등 리만 특유의 감미로운 선율로 가득한 작품들을 작곡가 자신의 피아노 연주로 새롭게 녹음하였다. 클래식 은 물론 뉴에이지 음악 애호가들에게도 크게 환영받을 수 있는 음반.

Canary Classics Best



CC05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트리오
길 샤함(vn)/ 에밀 브론프만(pf)/ 트롤스 외르크(vc)
바이올리니스트 길 샤함, 첼리스트 트롤스 외르크, 피아니스트 에밀 브론프만은 저마다 자신의 영역에서 최고의 명성을 구가하고 있는 솔리스트들이다.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트리오이 이 장르를 대표하는 걸작의 하나로, 세 정상급 연주자들의 뛰어난 개인기량과 조화로운 앙상블을 만끽하기에 안성맞춤인 레퍼토리다. 또한 주제와 변주로 구성된 2악장의 경우 각 변주별로 트랙을 꼼꼼히 나눠놓음으로써 감상자를 배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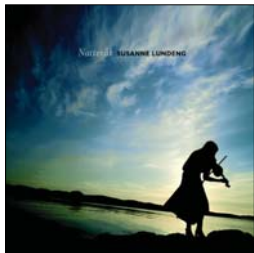
KKV Best



FXCD221
**KARI BREMNES:
NORWEGIAN MOOD**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싱어 송 라이터 카리 브렘네스의 세계시장 데뷔작. 각각의 곡들에서 느껴지는 뛰어난 작곡실력도 돋보이지만, 재즈, 포크, 락 등 다양한 음악을 편안하면서도 무리 없이 소화해낸 카리 브렘네스의 재능이 더욱 빛난다. 어쿠스틱 악기들의 편안한 울림과 축축한 보컬이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시키는 앨범.
***KKV 판매 차트 1위 뛰어난 음질로 오디오파일 음반으로도 손색이 없다.**



FXCD178
**SUSANNE LUNDENG:
ATTESYN**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수사네 룬명의 최고의 앨범! 가슴 저미도록 슬픈 연주곡 '나는 당신의 소중한 사람(Jeg Ser Deg Søte Lam: 아이 세르 다이 쇠트 램)'으로 우리 음악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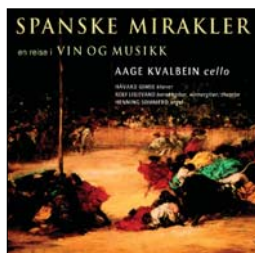


FXCD 310
**Susanne Lundeng:
Nattevak**
또 한번의 돌풍을 예고하다. 신비스런 노르웨이의 바이올린 연주자로 그 유명한 베스트 넘버 '나는 당신의 소중한 사람(Jeg Ser Deg Søte Lam: 아이 세르 다이 쇠트 램)'의 주인공인 수사네 룬명이 내놓은 오랜 만의 신보다. 아홉 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연주했고, 노르웨이의 옛 연주자들로부터 연주전통과 노르웨이 민속음악에 관한 많은 정보를 입수했던 그녀의 앨범은 언제나 특별할 수밖에 없다. 이번 음반도 노르웨이 전통 민속 음악 음반이다. 그녀 특유의 매력적인 선율이 많은데, 타이틀곡인 '잠 못 이루는 밤' 외에 '백일몽 같은 왈츠', '욕망', '남자들을 위한 춤', '출구' 등 아름다운 음악들이 주옥같은 시편처럼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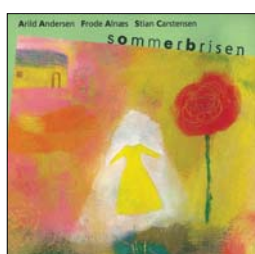


FXCD290-2
**CAROLA:
STORST AV ALLT**
인생사를 노래하는 카롤라의 새 앨범. KKV를 통해 <blott en dag>(하루하루, 1998), <jul i Bethlehem>(베들레헴의 크리스마스, 1999), <Sov Pa min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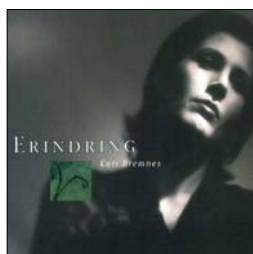
(내품에 잠들라, 2001)로 이어지는 성공적인 앨범들을 선보였던 카롤라. 가족애, 사랑, 죽음에 대한 노래들은 인생의 중요한 고비나 일상사의 사소한 매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인생의 동반자와도 같은 귀중한 보석이다. 찬송가 364장 '내 주를 가까이하게 함은'이나 러시아 민요 '나는 구름 위의 도시를 들었네'와 같은 우리 귀에 익숙한 선율들에서부터 자작 신곡들에 이르기까지 카롤라가 만들어내는 진한 감동은 그녀가 얼마나 뛰어난 가수인지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이전 작품<Sov Pa min arm>에서도 호흡을 맞추었던 아티스트 Kjetil Bjørkestad가 수록곡들을 효과적으로 편곡하였고,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라의 하나인 스타방거 심포니가 반주에 참여하여 품격높은 연주를 들려준다.



FXCD241-2
**AAGE KVALBEIN:
SPANISH MIRACLES**
와인과 어울리는 첼로연주로 기타와 오르간이 함께했다. 1번곡 로드리고의 아랑훼즈협주곡, 영화 금지된 창난의 테마인 9번곡 등 19곡의 아름다운 스페인계 클래식 음악들이 수록되어 있다.



FXCD198
**ARILD ANDERSEN:
SOMMERBRISEN**
노르웨이가 배출한 세계적인 재즈 베이스 연주자 아릴 안데르센의 98년도 앨범.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기 보다는 함께 협연한 기타, 아코디온과의 호흡을 중시해 편안하고 따스한 연주를 전한다. 1번 트랙 <Det Gar En Vind>(데 고르 엔 빈: 지나간 바람)은 이미 각종 드라마 등 TV프로그램을 통해 친숙해진 아름다운 곡.



FXCD156
**KARI BREMNES:
ERINDRING**
KKV 최고의 여성가수 카리 브렘네스의 95년 발표된 베스트 음반으로 그녀의 음악행보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덴마크의 시인 디틀레센의 텍스트에 곡을 부쳐 노래 한 타이틀곡 '회상(Erindring)' 한 곡만으로도 소장가치가 충분한 음반.



FXCD157
**SIGVART DAGSLAND:
DERT ER MARK I DE FOLDEDE HENDER**
노르웨이 국민가수 지그바르 닥슬란이 들려주는 성가경외심 가득한 닥슬란의 목소리와 Ole Edvard Antonsen의 더없이 따

뜻한 트럼펫과 함께하는 타이틀곡 '그대 모은 두 손에 담긴 권능', 이미 Sissel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친숙한 곡이 되어버린 끝곡 '당신의 넓은 날개를 펴소서'는 거대한 감동을 선사한다. 대중성과 예술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음반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KKV 최고의 음반중의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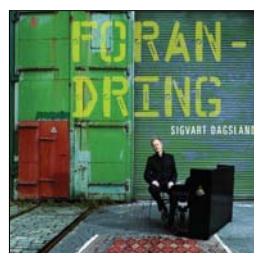


FXCD228
**SUSANA PENA:
CON EL CORO SKRUK**
에라도르 출신가수 수사네 페나의 성가모음집. 원곡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가의 경건함을 살리면서 그 특유의 구성진 보컬을 들려준다. 마치 종달새가 지저귀는 듯한 그녀의 탁월한 완급조절이 감칠맛을 전한다. 시편 91편을 텍스트로 한 11번 <하나님의 비호아래 사는 이>곡은 너무나 애절해서 우리귀에 쏙 들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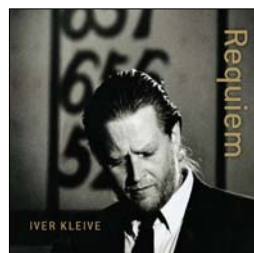


FXCD 321
**Kari Bremnes:
Live**
힘, 유혹 그리고 시적인 정신의 독특한 표현 카리 브렘네스의 라이브 앨범은 독일과 노르웨이의 거울 콘서트 레코딩 내용이 담겼다. 그대 콘서트가 대성황을 이뤘고 연주내용도 너무 좋아서 이번 앨범에 담았다고 한다. 기

존 레퍼토리는 신선하게 연주되었고, 뱅크니 한센의 키보드를 포함해서 그녀를 돕는 연주자들이 이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연주하는데, 청중들과 하나가 된 뜨겁고 열정적인 무대가 고스란히 담겼다고 할 수 있다. 수록곡: 나의 꿈에 관한 노래, 기타 노래, 별이없는 밤, 행복 몇가지, 그대가 돌아온다면, 내 심장이 뛰어요 등 11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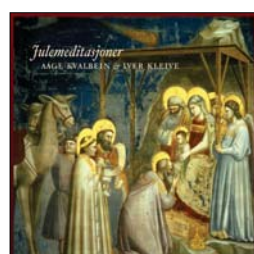


FXCD 323-2
**Sigvart Dagsland:
Forandring**
<변화> 레코드의 기념비 다른 음반사와 10년을 일한 후 닥슬란이 8개의 앨범이나 냈던 KKV에 돌아왔다. 놀라운 음성을 지닌 로류서 에릭 힐스테드를 만나 오랜만에 놀라운 잠재력을 과시한다. 타이틀곡 '변화', 그리고 방송을 통해 노르웨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세상은 속을 것이다(Verden vil bedras)'를 포함하여 '안쪽으로', '집안의 방', '여기가 갑자기 너무 고독해졌어', '슬픔', '모든 노래' 등 주옥같은 노래들이 실렸다. 레코드의 기념비라고 자랑할 정도로 자부심으로 가득한 신보.



FXCD 325
**Iver Kleive:
Requiem**

911 테러 희생자들에게 바치는 진혼곡 우리 시대 가장 매혹적인 교회 음악가 중의 한사람인 이베르 클레이베의 마음 깊은 감동의 새 앨범. 미국 911 테러 때 희생된 아들 알렉산더, 그리고 이라크 전쟁에서 희생된 병사들에게 바치는 진혼곡이다. 전통적인 라틴어 레퀴엠 텍스트를 기초로, 합창, 두 명의 독창자들이 등장해 노래한다. 이베르 클레이베도 오르간을 연주하며 오솔로 바흐 합창단 등과 함께 한다.



FXCD 328
**Aage Kvalbein & Iver Kleive:
JULEMEDITASJONER**
피아노와 첼로가 빛어내는 크리스마스 캐럴은 어떤 표정일까. 아름다운, 평화로움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 일은 IVER KLEIVE라는 노르웨이 국보급 건반 연주자와 AAGE KVALBEIN라는 독집 음반만 40장이 넘는 첼리스트가 함께하고 있음이다. KKV 레이블의 리스트 말고도 그이들은, 북유럽 고음악의 품격있는 해석에 집중하는 예술적 깊이를 많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AAGE KVALBEIN은 오솔로 태생의 첼리스트로 노르웨이 아카데미 교수로 재직중이다. 33살 약관에 보수적인 성향의 음악대학에서 교수로 발탁되어 술한 화제를 뿌렸고, 최고 인기를 누리던 여배우에게 부지런한 애정공세를 퍼 결혼하는가 하면 꾸준한 연주와 음반 녹음으로 왕성한 연주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정열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사랑의 가슴으로 충만한 그의 첼로는 크리스마스의 눈내리는 설경 가운데 따사로운 별빛과 함께 다가온다. 피아노와 첼로의 우정만큼, 이 두사람의 우정도 깊어서 KKV 레이블에 두장의 음반을 헌사하고 있

는데 지난해 출시된 이 성탄 캐럴집은 절친한 친구끼리 빚어낸 우정의 첫 열매다.



FXCD 338
**Skruk & Katia Cardenal:
Messe For Kari og Ola/
Misa Campesina**
농민 미사, 농부들의 찬송을 담아낸 노르웨이의 대표적 합창단 SKRUK과 중년에 접어든 니카라과 출신의 가수 Katia Cardenal가 함께한 반가운 신보. 니카라과 남미 음악의 순정과 격정을 가감 없이 들려주는 Katia Cardena는 이 음반에서도 온화한 누에바 칸시온과 북구의 장엄한 교회음악 합창단이 만나 형성해내는 제3지대의 음악 풍을 선사해준다. 남편을 따라 노르웨이로 이민을 오기 전, 그녀가 니카라과 시골 성당에서 듣고 따라 불렀던 미사곡들은 끝없이 밀려들었을 고국에 대한 향수와 애수의 뿌리였을 것이다. 결국 그녀는 농민 미사곡을 불러 뒤돌아섰던 풍경들과 재회하고, 한편 화해를 이뤄낸다. 전에 누에바 트로바의 기수로 알려진 실비오 로드리게스의 명곡들을 불러 음반 <간파 아 실비오 로드리게스>를 발표하기도 했던 그녀는, 여기 <농민 미사>에 이르러서는 민초들의 낮고 끈끈한 근기의 생을 영성에 이르는 대지의 숨과 신성에 이르는 창공의 기(氣)를 불어넣어 미려한 음성으로 알차게 담아냈다. 넓은 스피커로 들으면 더 질감이 느껴지는 합창은 <안데스 미사곡>으로 틈실히 다져진 스쿠룩 합창단의 익숙하고도 친근한 레퍼토리인지라 신뢰를 가지고 청음할 수 있을 것이다.



AMC2-095
World Music Collection
세상의 모든 음악 5:
즐거운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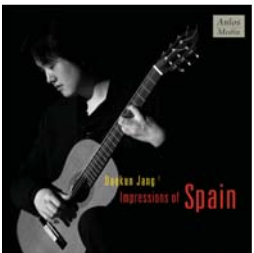
어느날 당신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음악은 쓰러지려는 당신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으며, 삶에 온기가 부족한 날 당신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줄 추억의 난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표를 붙이고 가지 않아도 순식간에 도착하는 편지이며, 언제든지 다시 열어볼 수 있는 즐거운 편지라는 것을...



TWCD-022
World Music Compilation
여행자의 노래 5집

남녘의 햇거리 들녘에서 푸른 바람처럼 달려온 〈여행자 임의진〉은 곡식자루 대신 월드포크 선 물구렁미를 풀어놓는다. 감미로운 선곡으로 생을 열렬하게 만드는 시인이자 수필가. 그의 5번째 여행이야기. 수백 수천 번 다시 듣게 될 Train Song, 햇살 부신 프랑스에서의 울적 슬픔 같은 것, 귀기 어린 이집트풍 캐럴, 우수 어린 이탈리아의 연가, 슬픈 티베트의 국어시간, 스페인과 북미, 남아공의 유랑악사들, 아바의 댄싱 퀸을 노래한 아일랜드

포키(크리스티 무어의 친동생이 기도), 그가 직접 전설적인 가수 [김두수]의 기타 연주 위에 체코 집시 민요를 부르기도. 사진은, 니콘이 선정한 사진작가 [김홍희]의 우정 어린 선물. 판화가 [류연복]의 작품으로 만든 기념 가방은 5집 발매를 맞아 덤으로 축하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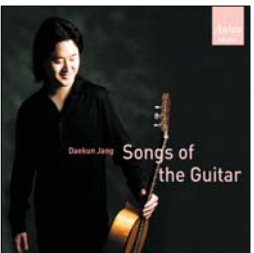
AMC2-090
장대건 2집:
Impressions of Spain
"스페인의 인상"

한국이 낳은 세계 정상급 기타리스트 장대건과 2008 그래미상 레코딩 부문 수상자 황병준의 만남!! 카날스, 밀란, 소르 등 유럽의 수많은 국제 콩쿠르를 석권하고, 스페인을 무대로 유럽에서 활동해 온 기타리스트 장대건의 2번째 음반. 스페인 기타음악의 주옥같은 레퍼토리를 엄선하여 그 래미상 레코딩 부문 수상자 황병준이 녹음에 참여한 최고의 연주, 최고의 레코딩. *보너스로 영화 〈금지된 장난〉중의 "로망스"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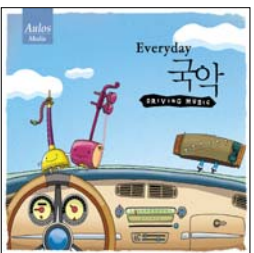
AMC2-090
법정스님 오디오북
연꽃 향기를 들으면서
김세원 / 낭독

지친 우리들의 영혼이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우리 시대의 존경 받는 어른 법정 스님과 우리 시대 최고의 목소리 김세원의 만남. 무소유의 행복을 설파하는 법정 스님의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향해 피워올리는 한 송이 연꽃 같은 오디오북. 법정스님이 전하는 삶의 이정표로 아주 귀중한 말씀을 담았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배경으로 성우 김세원의 목소리로 낭독됩니다.



AMC2-073
장대건 1집:
Songs of the Guitar
기타의 노래들

한국 기타 연주계의 든든한 미래 카날스, 밀란, 소르 등 유럽의 수많은 국제 콩쿠르를 석권하고, 스페인에서 활동해온 기타리스트 장대건의 한국 데뷔 음반. 상세하고 풍성한 내지 해설도 직접 감수했다. 경력만으로도 독보적이지만 연주를 들으면 더 놀라게 된다. 정교하고 화려한 기교, 깊은 사색, 정감있는 표현 등 그야말로 기타 예술의 진수를 들려준다.



AMC2-094
KBS 국악전문 프로듀서
김은정 PD가 추천하는

Everyday 국악
〈드라이빙 뮤직〉 [퓨전국악]

나만의 공간, 내가 아끼는 사람과의 시간에 포근함과 편안함을 함께 들어 놓을 수 있는 음악, 드라이빙 뮤직을 선정해 본다. 서양음악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쉽게 들을 수 있는 퓨전국악으로 매일매일 당신의 컵에 정겨운 우리 악기 소리를 두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

추천곡 : 라틴재즈밴드 카리브 〈아리랑〉, 신날새 〈What A Wonderful World〉, 정길선 〈기분 좋은 하루〉, 한충은 〈Misty〉, 김경아 〈여우 시집가던 날〉, 여울 〈Fly Me to the Moon〉, 그림판 〈나의 첫 번째 자전차〉, IS 〈백 만 송이 장미〉, 다스름 〈엘 콘도르 파사〉, 노은아 〈도라지〉, 플라잉코리아 〈오봉산타령〉, 인터 플레이 〈올라 아리랑〉등 12곡 수록.



AMC2-096
World Music Collection
떠돌이별 임의진의
〈러시아 여행〉

외롭게 떠도는 방랑자 임의진의 신보 〈러시아 여행〉. 월드뮤직의 이정표 〈여행자의 노래〉의 또 다른 결가지 떠돌이별 시리즈. 〈보헤미안〉, 〈기차여행〉, 〈쿠바여행〉에 이어 네 번째 여행지.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서 내려 시베리아 횡단열차로 갈아타 모스크바를 향하는 길엔 이 노래와 함께하시길!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러시아인 인디 포크 롱랑라, 닥터 지바고 '라라의 테마'의 달콤한 해석은 덤. 올 겨울 난로불과 같은 노래들속엔 고려인들의 사랑노래 '동철씨' 포함. 〈레닌이 있는 풍경〉의 다큐 사진작가 이상엽의 사진 선물.



AMC2-096
World Music Compilation
여행자의 노래 4집

시인이자 수필가, 그림도 그리는 [임의진]은 독특한 아티스트! 그가 즐겨듣는 노래와 생각을 공유하는 일은 반갑고 달콤한 일! 차오르는 눈물로 익사할 만큼 구슬픈 노래들과 지난한 여정에 닿은 방랑자의 신발 같은 노래들, 그리고 적적한 유랑의 기록! 4집 발매를 기려 한국 포크록의 전설 [김두수]는 세계인의 민요 〈클레멘타인〉을 새로 녹음했다. 선댄스 영화제가 낳은 배우이자 음유시인 글렌 헨서드의 숨은 절창, 쿠반 심어 헤비야의 〈불 나비〉, 아르메니아의 절절한 자장가, 재즈 실어 사라 K의 창백한 탄식...진정성과 예술성의 추구, 인디 비주류 음원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행자의 노래 시리즈만의 독창성이다. 부클릿을 수놓고 있는 사진작가 [김홍희]의 〈몽골기행〉은 소장 가치를 배나 높인다.



AMC2-086
〈나는 당신의 소중한 사람〉의 주인공 [수사네 룬덴]
베스트 컬렉션
'Jeg ser deg s te lam'

한 번만 들으면 온 마음을 뺏겨게 되는 〈나는 당신의 소중한 사

람〉으로 국내에서만 1만장의 판매고를 기록했던 노르웨이 바이올린 연주자이며 작곡가인 수사네 룬덴. 〈나는 당신의 소중한 사람〉 〈여기 모인 옛 친구들〉 〈뢰딩엔의 결혼행진곡〉 〈이상한 여행〉 〈킬라 로아 바네〉... 피오르드 협곡, 눈이 시리도록 질푸른 바다와 백야의 나라, 노르웨이의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스런 연주곡과 노래들.



AMC2-096
슬픈 선율의 마술사
[마이클 호페] 슈퍼 베스트 앨범
'슬픈 풍경'

영국 뉴 에이지 음악의 거장 마이클 호페의 하이라이트! 그의 애잔한 명곡들은 이 한 장에 모두 들어있다. 특별 보너스 트랙으로 아메리카, 하와이의 장엄함 풍광을 담은 '장엄한 땅 (This Majestic Land)'도 마련했다.



AMC2-087
KBS FM [당신의 밤과 음악]
25주년 기념 음반
[Prayer]

보석 같은 명곡과 기도문의 가슴 뭉클한 만남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크로스

오버, 뉴에이지, 월드뮤직, 그리고 영화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포근한 음악으로 깊은 밤 잠 못 이루는 청취자들을 감동시켜온 〈당신의 밤과 음악〉이 방송 25주년을 기념해 내놓은 특별기획음반. 프로의 진행자인 이미지션 아나운서의 따스하고 정감 넘치는 음성으로 낭송된 세계의 유명한 기도문 CD도 특별한 선물로 마련했다. 인디언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수녀의 기도 등 세계 유명인사들의 사랑과 평화, 위로의 메시지가 담긴 기도문이 잔잔한 음악과 함께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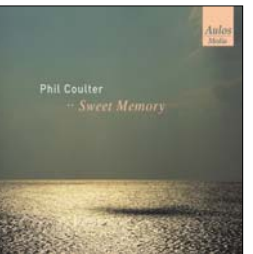


AMC2-074
한국인이 좋아하는
러시아 로망스 베스트 3
〈트로이카〉

끊어질 듯 끊어질 듯 예상을 뛰어넘는 길고 긴 고음, 러시아 음악 매니아의 우상 알라 소렌코바의 〈불가강〉 드디어 공개!!

그녀의 애절한 고음이 언제 멈추는지 확인하라. - 이 한장의 명반 저자. 안 동림 교수 -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진 월드뮤직 최고의 전문가 서남준 선생의 글을 서문으로 러시아 음악 전문가들이 극찬한 안나 게르만(스텐가 라진), 러시아 국민 성악가 이반 뻬트로프가 부르는 타이틀곡 〈트로이카〉, 잔나 비첸스카야의 〈속옥〉, 안나 리트비넨코가 부르는 〈집은 자주빛 숲〉등 이 겨울에 어울리는 주옥같은 러시아 레퍼토리들로 가득하다.



AMC2-075
아일랜드 뉴에이지 음악의 거목
필 쿨터의 베스트 컬렉션
〈Sweet Memory〉

20여개의 플레티넘 레코드를 기록했던 아일랜드 최고의 뉴 에이지 음악가이며, 국민 아티스트인 필 쿨터의 베스트 컬렉션. 가슴을 녹이는 아름다운 명곡 Any Dream Will Do(어떤 꿈이라도 이뤄질 거야)를 시작으로 Morning Has Broken(아침이 열렸다), Take Me Home(집에 데려다 주오), Annie Laurie(애니 로리), The Sally Gardens(살리 가든)등 꿈과 사랑, 희망의 메시지가 가득 담긴 잔잔한 선율들의 향연이다. 향수를 자아내는 애창곡과 민요들도 필 쿨터의 본능적인 선율감각으로 빚어져, 주옥같은 서정시로 다시 태어났다.



AMC2-072
우리 음악으로 이끄는 징검다리
FM 풍류마을

〈FM 풍류마을〉 제작진이 직접 만든 '이지 리스닝' 국악 가이드 KBS 제1FM의 인기 국악 프로그램 〈FM풍류마을〉의 제작진이 우리 국악의 대중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출시한 화심의 국악 웰빙 음반. 진정으로 좋아서 듣고 즐기며 감동 받을 수 있는 국악 레퍼토리들이 여기 다 모였다.

OpusArte DVD B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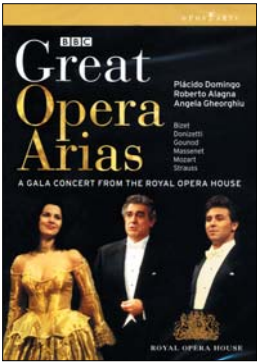


2DVD SET

OA0990D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로알 오페라하우스, 코벤트 가든
넵트렌코의 연인, 어린 슈로트의
넘치는 매력을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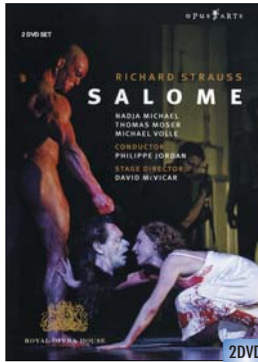
OA R3106D
구노: 로미오와 줄리엣
감동적인 명연으로 기록된 1994
년 코벤트가든 로열 오페라 실황.
〈로미오와 줄리엣〉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이전부터 이탈리아 베로
나 지방에 전승된 민담이다. 이걸
오페라로 만든 것으로는 벨리니
의 〈카풀레티 가와 몬테키 가〉,
잔도나이의 〈줄리에타와 로미오〉
등도 있지만 구노의 것이 최고로
꼽힌다.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도
2시간 50분이 소요되는 대작인
데, 마지막 장면은 원작과 달리
로미오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줄
리엣이 깨어나 슬픔을 더한다.



OA R3109D
1996년 코벤트가든 오페라 갈라
신혼의 알라나-게오르규 부부가
제왕 도밍고와 함께 한 1996년
갈라. 마지막 무대에 플라시도 도
밍고가 직접 지휘대에 서서 레하
르의 '금과 은' 왈츠를 지휘한다.
현재도 맹활약하고 있는 최고 명
가수들의 12년 전 모습도 만끽할
수는 초호화판 갈라다. 화질, 음
질도 최상급이다.



OA R3110D
차이코프스키 발레 & 오페라 갈라
차이코프스키 100주기(1993년)
로 펼쳐진 코벤트가든 최고의 갈
라. 세계적인 성악가 플라시도 도
밍고, 드미트리 호보로스토프스
키, 키리 테 카나와까지 참여한
성대한 실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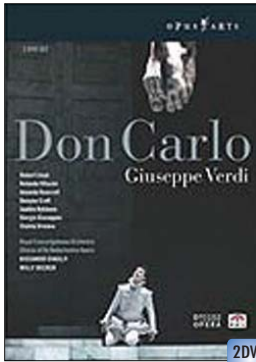


2DVD SET

OA 0996D
R 슈트라우스: 살로메
2008년 3월 로알 오페라하우스
코벤트가든 무대에서 펼쳐졌던 R
슈트라우스의 '살로메'는 영국
오페라계의 크나큰 충격파를 안
겨주었던 화제만발의 공연.



OA 0995D
차이코프스키: 잠자는 미녀
로열 발레의 최고의 스타, 알리나
코조카루의 첫 전막발레 영상물.
루마니아 출신의 알리나 코조카
루는 영국의 로열 발레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발레리나다. 특
히 카리스마 넘치는 스타가 아니
라 관객들이 마치 여동생을 대하
듯 좋아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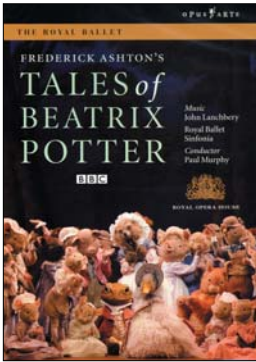
2DVD SET

OA 0933
베르디: 돈 카를로
세계 오페라계 최고의 스타로 떠
오른 테너 롤란도 비아존의 첫
영상물



2DVD SET

OA 0983D
**마스카니: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레온카발로:
팔리아치**
멜 모나코가 열창하던 베리조모
의 오페라를 그 이들이 연출하다!
세기말의 이탈리아 오페라 극장
가를 주름잡은 베리조모 오페라,
즉 치정으로 얹힌 암울한 상황을
그려낸 사실주의 오페라의 출발
점이자 대표작들이다.



OA 1001D
애쉬튼: 베아트릭스 포터 이야기
베아트릭스 포터의 동물 동화를
발레로 만나는 최고의 선물!
크리스 누난이 감독한 영화 〈미
소 포터〉(2006)은 영국의 국민적
동화 작가 베아트릭스 포터
(1866~1943)의 삶과 사랑을 감
동적으로 그린 영화다. 본 영상물
은 포터의 동화 주인공인 갖가지
동물들을 이야기를 발레로 만든
것이다. 영국 로열 발레의 무용수
들이 토끼, 쥐, 거위, 개구리, 여
우 등으로 분장하여 아기자기
하고 환상적인 동화의 세계로 이
끈다.



OA 0993D
아당: 지젤
우리 시대의 전설, 알리나 코조카
루의 〈지젤〉을 드디어 만나!

OpusArte DVD 스테디 셀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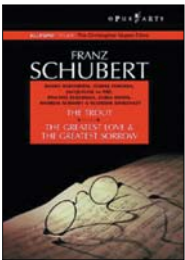
OA 0856D
Prom at the Palace
금세기 초호화 연주자
들이 최고의 레퍼토리
로 한자리에. 버킹검궁
정원에서의 엘리자베스
여왕 즉위 50주년 기념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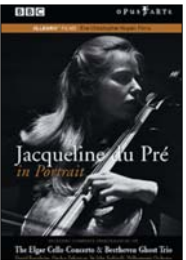
OA 0857D
Prom at the Party
버킹검궁 정원에서의
엘리자베스 여왕 즉위
50주년 기념 콘서트.



OA 0896D
비발디: 사계
웨일즈 식물원에서 펼
쳐지는 지구상에서 가
장 유명한 클래식 음악



OA CN0903D
Schubert: The Trout
재클린 듀프레와 함께
한 슈베르트 피아노 오
중주 '송어'.
우리 애호가들이 가장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
상물이 아닐까.



OA CN0902D
Jacqueline du Pré in Portrait
이 귀중한 영상물 BBC
가 또 한번 놀라게 한
다. 여류 천재 첼리스트
의 대명사 재클린 듀프
레 그녀의 귀중한 영상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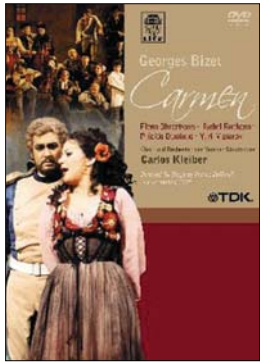


OA 0905D
Astor Piazzolla In Portrait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초상. 탱고 거장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현대 탱
고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르헨티나의 밴드리더
겸 작곡가 아스토르 피
아졸라의 모든것을 보
여주는 귀중한 영상물.

TDK DVD Best



DVWW-CLOPTUR
푸치니: 투란도트
최전성기의 에바 마르톤과 호세 카레라스가 열창한 절정의 무대



DVUS-CLOPCAR
비제: 카르멘
제피렐리(연출)와 클라이버(지휘)가 만난 빈 슈터츠오퍼의 기념비적 실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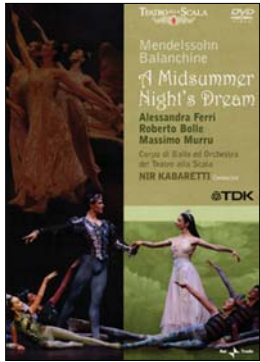
DVUS-OPBOH
푸치니: 라보엠
홍혜경이 뮤제타를 노래한 라스칼라의 2003년 최신 실황.



DVWW-OPRIGL
베르디: 리골레토
그레이엄 빅의 연출과 세 주역가수가 빼어난 조화를 이룬 최신 리골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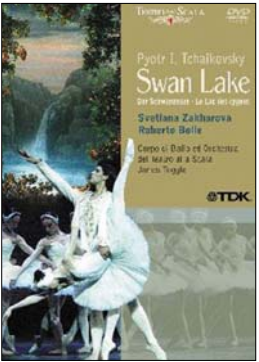
DVWW-COMARG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함께 하는 피아노의 저녁
마르타 아르헤리치, 피아노/ 르노 카푸송, 바이올린/ 고티에르 카푸송, 첼로
알렉산더 라비노비치-바라코프스키, 지휘/ 폴란드즈 심포니 오케스트라
[프로그램]
프로코피예프:
교향곡 1번 '클래식',
피아노협주곡 1번
슈만: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베토벤: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를 위한 트리플 콘체르토



DVWW-BLMID
조지 발란산: 한여름 밤의 꿈
2007년에 은퇴한 알레산드라 페리의 기념비적 라스칼라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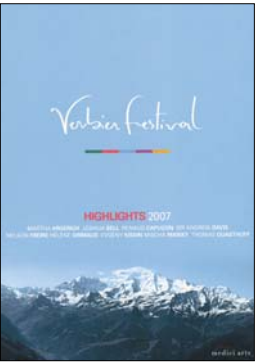


DVWW-BLGISP
아당: 지젤
본 영상물은 2006년 12월, 파리 가르니에 극장에서 있었던 파리 오페라 발레의 실황을 담은 것인데, 이 작품에 대한 동 발레단의 연고권에도 불구하고 정식 영상물로는 처음 소개되는 것이다. 전설적인 무대장치인 알렉산드르 브누아가 1924년에 제작한 세트를 재현하여 독특한 미감을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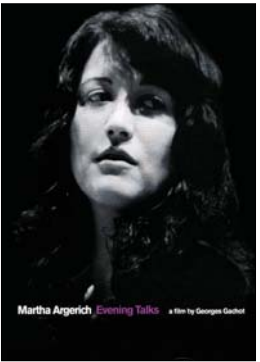


DVWW-BLSL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우리 시대 최고의 발레리나, 스베틀라나 자하로바의 '백조'이 세상에는 훌륭한 발레리나들이 많이 있지만 '발레리나 아줄루타'(ballerina assoluta)로 불리는 절대적 경지에 오른 무용수는 그중 일부에 불과하다. 신이 빛어낸 발레리나로 불리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스베틀라나 자하로바는 키로프 발레를 거쳐 현재 볼쇼이 발레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세계 각지의 일류 발레단에 초청받고 있는 우리 시대의 발레리나 아줄루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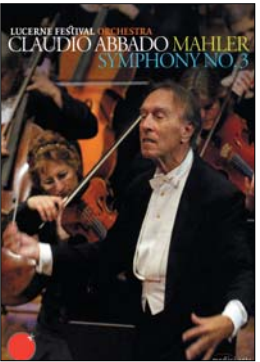
Medici Arts DVD B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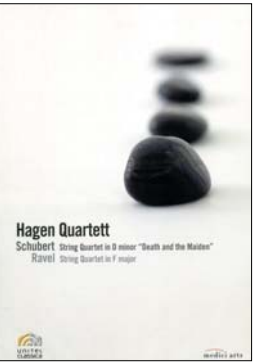
medici arts 3078058
2007년 스위스 베르비에(Verbier) 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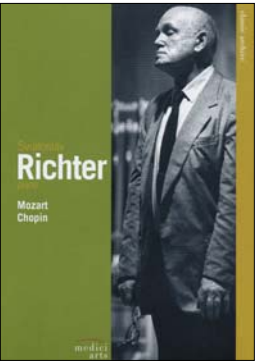
medici arts 3073428
마르타 아르헤리치:
저녁의 대화



Medici Arts 2056338
말라: 교향곡 3번
안나 라르손(알토)/ 아놀드 쇤베르크 합창단, 텔처 소년합창단/ 클라우디오 아바도(지휘)/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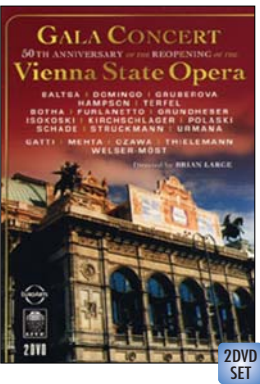
Medici Arts 2072338
모차르트: '하이든' 현악사중주
하겐 현악사중주단
▶ 실내악 애호가들을 위한 하겐 사중주단의 큰 선물
▶ 현 세계 최정상급 현악사중주단이 연주하는 모차르트의 "하이든사중주"
▶ 모차르트가 하이든에게 헌정한 "하이든사중주곡" Nr.15-19



Medici arts 3085208
스비아토슬라브 리흐테르
모차르트: 소나타 4, 8, 16번 (K.282, 310, 545)
쇼팽: 에튀드-타블로 Op.39, No.3
▶ 어린이가 병병해질 정도의 완벽한 거장 피아니스트
▶ 1989년 3월 29일 런던 바비칸 센터 연주 실황



MediciArts 2057378
베토벤: 교향곡 전집
클라우디오 아바도(cond)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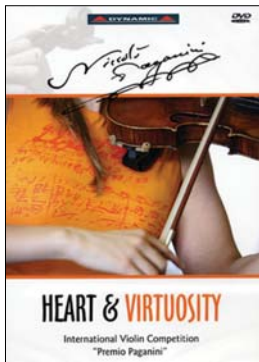


EuroArts 2054928
Gala Concert from the Vienna State Opera 22
World Top Opera Singers
빈 국립오페라재개관 50주년 기념 갈라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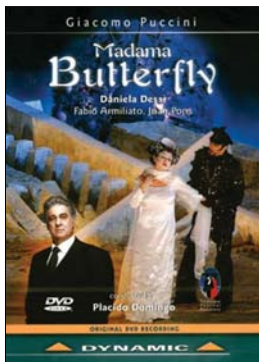


EuroArts 2055178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콘서트 (클래식, 팝, 재즈, 월드뮤직의 향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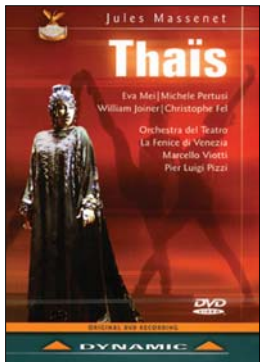
Dynamic DVD B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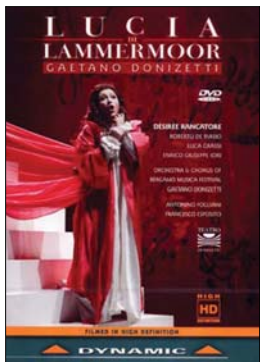
Dynamic 33539
Heart & Virtuosity
International Violin
Competition "Premio
Paganini"
2006년 51회 파가니니 바이올린
콩쿠르의 생생한 뒷이야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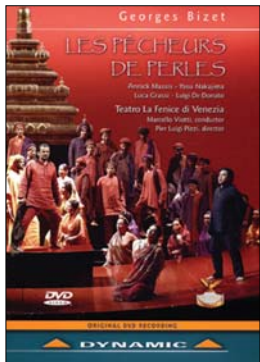
Dynamic 33457
푸치니: 나비 부인
제목에 착안하여 등장인물의 캐
릭터를 벌레처럼 묘사한 독특한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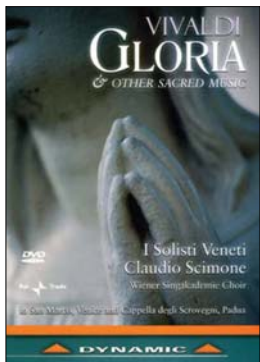
Dynamic 33427
마스네: 타이스
종교와 에로스의 극치끼리는 통
한다! '타이스 명성곡'의 오페라



Dynamic 33535
도니체티: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베르가모 도니체티 페스티벌 실
황의 '세상에서 가장 슬픈 오페
라'



Dynamic 33459
비제: 진주조개잡이
'나디르의 로망스', 그 황홀한 매
력이 넘치는 오페라



Dynamic 33506
비발디: 글로리아
RV588 & 589, 살베 레지나, 스
타바트 마테르, 협주곡 C장조
& D장조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지휘한 비
발디의 종교걸작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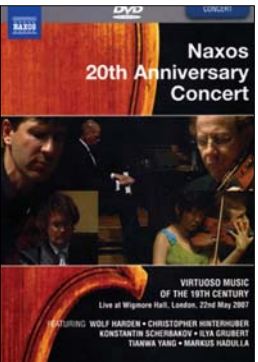


Dynamic 33542
코렐리 & 테발디 1973년 동경
공연실황
1973년 11월, 서울에서 날아간
테발디와 코렐리의 동경 공연실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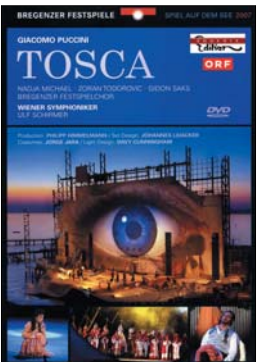


Dynamic 33482
2005년 라 페니체 신년음악회
지휘 : 조르주 프레트레
수상도시 베니스의 상징과도 같
은 오페라극장 라 페니체. 1792
년에 건설된 이 아름다운 극장은
1836년과 1996년 두 차례나 화
재로 소실되었지만, 불사조
(Fenice)라는 이름 그대로 잿더
미 속에서 다시 살아났다. 매년
첫날 이 극장에서 펼쳐지는 신년
음악회는 빈의 그것과 더불어 유
럽 음악계를 대표하는 신년행사
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Naxos DVD Best Phoenix DVD Best Nupen Films DVD Best



Naxos 2.110227
낙소스 창립 20주년
기념 콘서트
클래식 음반 산업의 공룡으로 급
성장해버린 낙소스의 창립 20주
년을 기념하는 의미심장한 축하
연주회가 2007년 5월 22일 영국
의 유서 깊은 실내악의 전당인
위그모어홀에서 펼쳐졌다. 본
DVD는 바로 그 공연실황을 수록
한 것이다.



Phoenix 801
푸치니: 토스카
커다란 푸른 눈을 배경으로 펼쳐
지는 토스카의 비극
스위스 국경 인근에 위치한 오스
트리아의 작은 산골마을 브레겐
츠는 매년 여름마다 특별한 오페
라 축제를 펼쳐 전세계 음악애호
가들의 발걸음을 유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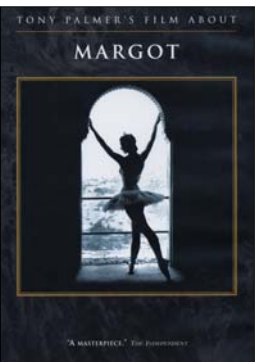


Nupen Films A08CN D
이착 필만 :
비르투오소 바이올리니스트
▶ 장애를 딛고 세계 최고의 바
이올리니스트 자리에 올랐던 이
착 필만의 삶과 연주세계 조명
▶ 파가니니와 비에니아프스키의
카프리스, 사라사테의 타란텔라,
파가니니의 라 캄파넬라... 흥미
로운 레퍼토리들이 대거 수록
▶ 장애를 딛고 세계 최고의 바
이올리니스트 자리에 올랐던 이
착 필만의 삶과 연주세계 조명



Nupen Films A07 CN D
재클린 듀프레:
그녀의 독특하고 무한한 재능에
대한 찬사
▶ 불세출의 천재 첼리스트 - 재
클린 듀프레 영상물의 결정판 ▶
최초로 공개되는 1980년 듀프레
와의 귀중한 인터뷰 장면 포함
▶ 더 타임스 극찬 "심장이 멎을
듯한 기록물"
▶ 저명한 필름 제작자 크리스토
퍼 누펜이 직접 안내
▶ 다양한 흑백 및 컬러 정지 화
상으로 꾸며진 영상편집: 브람스
인터루드
▶ 바렌보임, 주커만, 필만, 메타,
플리스, 피셔-디스카우, 아쉬케나
지, 후송 등 약 20명 정도의 친
구와 동료 음악가들이 직접 등장
해 증언하는 천재의 생애와 위대
한 예술
▶ 전에는 볼 수 없던 장면 수록
한 귀중한 DVD

Tony Palmer DVD Best



TONY PALMER TPDVD124
마고트 폰테인
위대한 발레리나이자 모든 면에
서 아름다웠던 마고트 폰테인의
기록

마고트 폰테인(1919~1991)은 20
세기 발레리나의 표상이다. 너무
도 완벽한 무용수였기에 '프리마
발레리나 아줄루타(절대적인 주
역 무용수)'라 불렸으며 은퇴할
나이인 40대를 넘겨 러시아에서
망명한 루돌프 누레예프를 만나
자 기적과 같은 파트너십으로 부
활했다.



Blu-ray Disc

차세대 HD미디어 블루레이(Blu-ray)란?

블루레이 디스크는 650nm(나노미터) 파장의 적색 레이저를 사용하는 DVD에 비해 더 짧은 파장의 405nm 청자색 레이저를 사용하기에 블루레이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4.7G 용량의 DVD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50G 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 프로페셔널 레코딩은 물론, 영화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 선명한 고화질 영상과 손실 없는 사운드까지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도록 고안된 차세대 미디어입니다.



Arthaus 101 286

베르디: 리골레토

레오 누치(리골레토), 포르트 베찰라(공작), 엘레나 모슈크(질다)/ 넬로 산티/ 취리히 오페라

현존 최고의 리골레토 레오 누치와 이탈리아 오페라의 베테랑 넬로 산티의 감동적인 만남
이탈리아의 국보급 바리톤 레오 누치는 1973년 밀라노에서 '리골레토'로 큰 성공을 거둔 이후 30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이 배역 최고의 가수로 군림해오고 있다. 2006년 스위스 취리히 오페라하우스에서 있었던 공연을 기록한 이 DVD는 누치의 리골레토 중에서도 첫 손에 꼽힐 정도로 감동적인 열연을 수록하고 있다. 이 공연을 빛나게 만든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은 지휘자 넬로 산티이다. '파파 산티'라는 애칭으로 유럽 일급 오페라 극장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노대가의 관록과 이 오페라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이 공연을 통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두 거장의 뒤를 받치고 있는 젊은 신예들의 활약도 눈부시다. 그간 모차르트의 오페라들을 통해 좋은 평가를 받아왔던 폴란드 출신의 테너 피오토르 베찰라의 맑은 미성과 작은 몸집에도 당당한 목소리를 들려주는 루마니아계 스위스 소프라노 엘레나 모슈크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다. 여기에 베테랑 베이스 라슬로 폴가의 스파라푸칠레와 미모와 연기가 돋보이는 카나리나 페츠의 막달레나가 연주의 완성도를 드높였다.



Arthaus 101 344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안젤라 게오르규(비올레타), 라몬 바르가스(알프레도), 로베르토 프론탈리(제르몽)/ 로린 마젤

여전히 아름다운 게오르규, 로린 마젤의 강렬한 카리스마, 라몬 바르가스의 열창
루마니아 출신의 세계적인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는 솔티와 함께했던 1994년 코벤트가든의 '라트라비아타' 공연실황으로 미모와 재능을 겸비한 오페라계의 새로운 히로인으로 화제의 중심에 자리 잡았었다. 네트렘코의 등장으로 인해 게오르규의 '라트라비아타'가 다소 세인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진 느낌이지만, 2007년 밀라노 라 스칼라에서의 공연실황을 담은 본 DVD는 그가 여전히 매력적이고 우아한 비올레타임을 다시금 증명해준다. 13년 전에 비해 연륜이 배어나오는 얼굴지만, 우아한 자태와 기품이 배어나오는 연기는 이전보다 한결 농익은 느낌이다. 뛰어난 연기에 혼신의 열창이 더해져 1994년의 영상에 버금가는 매력만점의 비올레타를 형상화하였다. 로린 마젤은 강렬한 카리스마로 전곡을 이끌어 나가며, 멕시코 출신의 세계적인 테너 라몬 바르가스의 성실한 가창과 이탈리아의 관록의 바리톤 로베르토 프론탈리의 등직한 서포트도 인상적이다. 연출가 밀리아나 카바니는 과거 모험적인 연출로 술한 화제를 낳기도 했지만, 본 영상에서는 호화로운 무대와 전통적인 연출로 일반적으로 기대하게 되는 이 오페라의 이미지를 충실히 반영해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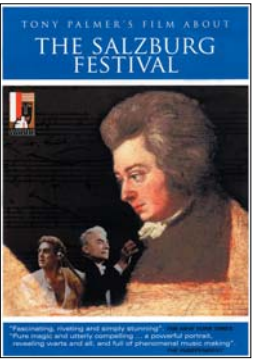
TDK DVBD-OPTOV

푸치니: 토스카

아레나 디 베로나에서 펼쳐진 최고가수와 최고연출가의 압도적 무대
<로미오와 줄리엣>의 도시 베로나의 고대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여름 오페라 페스티벌은 2013년이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다. 그 전통과 명성에 걸맞게 베로나 페스티벌은 진화를 거듭하여 공연 수준에 있어서도 톱클래스에 올라섰다. 베로나 페스티벌의 지휘자로는 이스라엘 출신인 다니엘 오렌이 간판스타다. 거대한 스케일과 명확한 완결성을 이끌어낸다. 연출가로는 아르헨티나 태생의 후고 데 아나의 명망이 높다.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스타일을 견지하면서 압도적인 무대와 극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여 야외극장의 장점을 십분 살린다는 평가다. 2006년 페스티벌에서 이 두 거장이 힘을 합쳐 심금을 울리는 푸치니의 걸작 <토스카>를 멋지게 창조해냈다. 무대만 볼만한 것이 아니라 연주 수준에 있어서도 근래 주목할 만한 것이다. 당연히 출연진의 면면도 화려하다. 이탈리아에서 현역 최고의 드라마틱 소프라노로 인정받고 있는 피오렌차 체돌린스(코스카), 파바로티와 도밍고의 뒤를 잇는 대형테너 마르셀로 알바레스(카바라도시), 이탈리아 베이스바리톤의 상징인 루제로 라이몬디(스카르피아)가 주요 배역을 맡아 1800년 6월의 어느 하루 동안 펼쳐지는 사랑과 질투, 음모와 살인의 드라마를 멋지게 그려냈다. 정치적 격동과 개인사가 얽힌 비극이 서사적으로 묘사되었으며 이를 잘 살린 역동적인 카메라워크도 일품이다.

Tony Palmer's Film DVD

www.tonypalmerdvd.com



Tony Palmer's DVD
TPDVD128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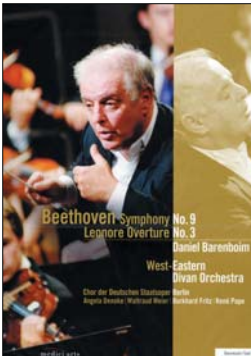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이 걸어온 영욕(榮辱)의 역사를 영상으로 만나다.
부활절 기간 중에 펼쳐지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명실상부한 세계최고의 음악축제이다. 모차르트와 카라얀을 배출했던 이 아름다운 도시는 매년 봄마다 세계각지로부터 클래식 순례자들을 불러 모은다. 음악다큐멘터리의 거장 토니 팔머가 이 위대한 음악축제의 역사를 영상으로 옮겼다. 지난 80여 년 동안 이 축제를 빛나게 만들었던 역사적인 거장들이 줄지어 이 영상물에 모습을 드러낸다. 자타가 공인하는 잘츠부르크 축제의 황제였던 카라얀의 활동상을 비롯하여, 발터, 푸르트벵글러, 토스카니니, 크라우스, 코나퍼츠부시, 뵘과 같은 전설적인 거장들과 유리나츠, 슈바르츠코프, 리프, 루트비히, 야노비츠, 피셔디스카우와 같은 추억의 가수들이 이 축제에서 활동했던 모습을 담은 귀한 기록들, 그리고 안손스, 래틀, 바렌보임, 게르키예프, 오자와, 무터, 랑랑, 햄슨 등의 현역 거장들이 털어놓는 이 축제와 카라얀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든다. 토니 팔머는 나치 치하에서의 어두운 과거, 그리고 카라얀 사후에 이 축제에 몰아쳤던 위기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까지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기록해 놓았다. 절대 놓칠 수 없는 역사 영상물.



Medici Arts DVD

www.euroarts.com

***Medici Arts는 EuroArts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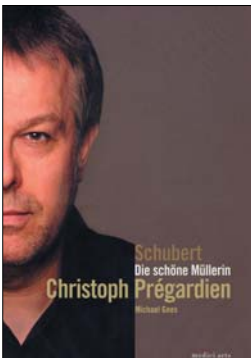


Medici Arts DVD 2055528

베토벤 : 교향곡 9번 '합창', 레오노레 서곡 3번

앙겔라 데노케(sop), 발트라우트 마이어(ms), 부카르트 프리츠(te), 르네 파페(bass)
베를린 슈타츠오퍼 합창단/ 다니엘 바렌보임/ 웨스트-이스턴 디반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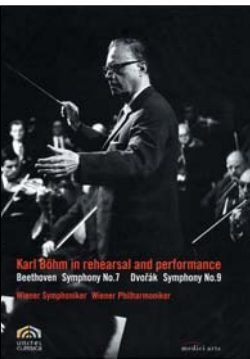
이스라엘과 아랍의 젊은이들이 한 마음으로 연주한 감동의 합창교향곡
웨스트-이스턴 디반 오케스트라는 영원한 지구상의 화약고인 중동지방의 평화를 꿈꾸기 위해 유대인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과 팔레스타인 출신의 세계적인 석학 에드워드 사이드가 의기투합하여 조직했던 프로젝트 오케스트라다. 이스라엘과 아랍의 재능 있는 젊은 음악학도들이 음악이라는 공통분모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두 민족의 화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바렌보임의 헌신적인 조련을 통해서 음악적으로도 정상급 기성 오케스트라들에 뒤지지 않는 빼어난 성과들을 만들어왔다. 지난 2006년 8월 20일 브람스 교향곡 1번등을 연주했었던 그라나다 콘서트 DVD로 소개된데 이어서, 같은 해 8월 27일 베를린 필하모니에서 있었던 화제의 콘서트 실황이 연이어 발매되었다. 인류의 화합과 기쁨을 노래한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은 이 특별한 오케스트라의 설립목적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바렌보임의 강렬한 카리스마 아래에서 중동의 젊은 연주자들이 열정적으로 연주한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은 특별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발트라우트 마이어와 르네 파페를 비롯한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솔리스트로 참여했으며, 베를린 슈타츠오퍼 합창단의 뛰어난 앙상블 역시 이 특별한 실황의 완성도를 한층 돋보이게 만든다.



Medici Arts DVD 2057308

슈베르트 :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 전곡

독일 리트 애호가들을 위한 프레가르디엔의 멋진 영상물
크리스토프 프레가르디엔은 페터 슈라이어 이후 바로크 종교음악과 리트 양 분야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독일의 중견 테너이다. 현존 최고의 에반젤리스트(복음사가)로 손꼽히며, 모차르트 오페라와 독일 리트에서도 발군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슈베르트의 걸작연가곡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는 특히 프레가르디엔이 각별한 열정을 보여 왔었던 작품이다. 그는 두 번의 공식 녹음을 남겼다. 슈타이어의 포르테피아노 반주로 녹음한 1991년의 녹음은 독일비평가상을 수상했으며, 미카엘 게스의 피아노 반주로 녹음한 2007년의 두 번째 녹음은 그라모폰의 에디터스 초이스에 선정되었다. 본 영상물은 지난 2008년 8월 25일 슈투트가르트의 모차르트홀에서 있었던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두 번째 녹음의 파트너였던 미카엘 게스가 피아노반주를 담당하였다. 프레가르디엔은 부드러운 음성과 표정 풍부한 가창을 통해 텍스트에 담긴 주인공의 심리변화를 충실히 표현해내었다.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 20곡 전곡 외에도 '백조의 노래' 중 '사랑의 소식'과 '안식처', 그리고 '비둘기편지'가 앙코르로 노래되었다. 78분에 달하는 콘서트 실황 외에도, 프레가르디엔이 말하는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에 대한 26분 분량의 보너스영상물이 함께 수록되었다. 독일 리트 애호가라면 놓칠 수 없는 멋진 DVD다.



Medici Arts DVD 2072178

베토벤: 교향곡 7번(리허설+연주)
드보르작: 교향곡 9번 '신세계'

칼 뵘/ 빈 심포니커(베토벤), 빈 필하모니커(드보르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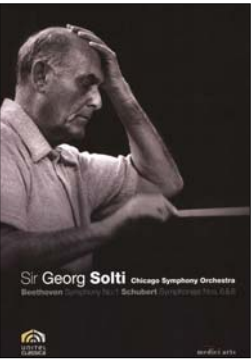
칼 뵘의 강렬한 카리스마를 담은 베토벤 교향곡 7번과 신세계 교향곡
가부장적이면서 엄격한 그라츠 출신의 마에스트로이자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지휘자인 칼 뵘은 능수능란하면서도 타협의 여지가 없는 오케스트라 조련사이자 범접할 수 없는 권위의 소유자로 음악가들에게 존경심과 두려움을 함께 느끼게 만들었다. 베토벤 교향곡 7번에 대한 리허설과 공연은 1966년 5월 빈의 스튜디오 로젠에서 녹화된 흑백영상물로 빈 심포니를 지휘한 것이다. 이 역사적인 기록물은 이 위대한 작품에 대한 거장의 세세한 심미안을 엿보게끔 허락해준다. 또한 리허설 룸에서 그가 정성을 다해 다듬은 결과물이 어떻게 실제 콘서트에서 현실화되는지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빈 필하모닉을 지휘한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 전곡 연주가 함께 수록되었다. 거장이 남긴 동곡의 유일한 공식 녹음인 1978년 5월 무지크페라인에서의 레코딩세션 당시를 담은 값진 영상기록이다. 레코딩 목적의 연주이기에 객석에 관객이 없는 상태이지만, 영상물의 제작을 미리 염두에 두었던 듯 지휘자와 악단 모두 연미복을 갖춰 입은 상태로 연주가 진행된다. 거장이 사망하기 3년 전의 기록이지만, 그의 운유한 표정 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는 여전히 강렬하다. 컬러영상으로 녹화시기에 비해 화질이 준수한 편이다.



Medici Arts DVD 2072338

슈베르트: 현악사중주 D단조 '죽음과 소녀'
라벨: 현악사중주 F장조

하겐 사중주단이 연주한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현악사중주의 하나이자 로맨틱 실내악의 전형과도 같은 작품인 '죽음과 소녀'와, 독특한 색채감과 폴리포닉한 음악스타일을 보여주는 근대 실내악의 걸작인 라벨의 현악사중주를 하겐 사중주단의 빼어난 앙상블로 만나볼 수 있는 멋진 영상물이다. 1981년 잘츠부르크 출신의 4남매가 함께 결성했던 하겐 사중주단은 중간에 몇 번의 멤버교체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팀워크와 뛰어난 연주력으로 20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정상급 현악사중주단의 자리를 꾸준히 지켜나가고 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개성적이고도 잘 다듬어진 소리맵시와 유기적인 앙상블은 실내악 애호가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왔었다. 본 DVD에 수록된 두 연주는 이들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준다. 오스트리아 보라우의 아름다운 바로크 도서관에서 녹화된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는 결성직후 탈퇴한 안젤리카 하겐을 대신하여 아네트 비크가 2바이올린을 맡았던 1987년의 기록이다. 2000년 이들의 고향 잘츠부르크의 모차르트음에서 공연되었던 라벨의 현악사중주에서는 현재 멤버인 라이너 슈미트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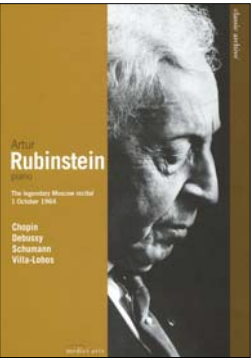


Medici Arts DVD 2072468

베토벤: 교향곡 1번
슈베르트: 교향곡 6번, 8번 '미완성'

전설적인 궁합, 자율성의 승리

지휘자와 오케스트라의 궁합이 아주 좋기로 유명한 솔티와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20세기 전설적인 관계 중의 하나였다. 솔티는 1969년부터 1991년까지 무려 22년 정도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이끌었는데, 그는 자신과 시카고 심포니와의 관계를 'love affair', 즉 '연애사건'으로 규정했었다. 그만큼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혼신의 힘을 다한 애정으로 가꿔왔다는 말이다. 시카고 심포니의 기술적인 완성은 특별히 언급할 필요를 못 느낀다. 솔티의 지휘 철학은 오케스트라의 상상력과 무한한 잠재력을 믿고 단원들을 '연주하도록 나뉘었다는' 것인데, 과연 세 곡의 해석 모두에서 자율성의 승리를 직감할 수 있다. 베토벤의 교향곡 1번은 1978년 9월 5일 런던 로열 앨버트 홀 공연,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과 '6번' 교향곡은 1979년 12월초 양일간 시카고 오케스트라 홀에서의 실황 내용이다. 보너스 트랙에는 연주된 슈베르트 교향곡 두 곡에 대한 솔티의 견해가 피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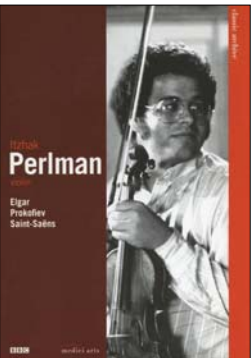


Medici Arts DVD 3078548

루빈스타인: 전설적인 1964년 10월 1일 모스크바 독주회

러시아 국영 텔레비전 자료보관실에 있던 희귀자료

루빈스타인이 1964년 10월 1일 모스크바 음악원의 연주 홀에서 많은 청중 앞에서 연주했던 때의 영상물이다. 근엄하게 꼭 다문 입, 감정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표정을 거의 보여주지 않지만, 그의 공연은 언제나 카리스마로 가득하다. 그런데 그의 기록은, 음반이나 영상물이나,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 영상물은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러시아 국영 텔레비전 자료보관실에서 거의 50년간 잠자고 있던 희귀자료이며, 그간 공개된 적이 없는 영상이다. '영웅'을 포함한? 폴로네즈 두 곡 외에 즉흥곡, 녹턴, 뱃노래, 연습곡, 왈츠, 그리고 소나타 2번 등 주로 쇼팽의 음악이 담겼고, 슈만의 환상소곡, 드뷔시, 빌라-로보스의 곡도 연주한다.



Medici Arts DVD 3085228

이작 필먼: 프로코피예프/엘가/생상스

연주: BBC심포니 오케스트라, 새들러스 웰스 오케스트라
지휘: 로제스트벤스키, 매커라스

20대에 이미 거장의 풍모를 보인 필먼

이스라엘 출신의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필먼은 모두 인정하는 우리 시대 최고의 거장 중의 한 사람이다. 끝 트랙에 관심이 쏠린다. 찰스 매커라스가 지휘하는 새들러스 웰스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는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인데, 특별히 매혹적이다. 영상은 1970년 런던에서 촬영한 것. 필먼이 런던에 데뷔한 해가 1968년이니까, 당시 런던과의 인연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의 산물인 셈이다. 온갖 협주곡 레퍼토리를 이미 꿰고 있어 미국에 공부하러 간 정경화를 주눅 들게 했던 그였던 만큼, 25세 필먼은 이때 이미 거장이었다. 확실한 템포조절과 정확한 음정으로 현 위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튀는 스피카토만 봐도 놀라울 정도다. 프로코피예프, 엘가의 협주곡은 각각 1980년과 1981년 음원인데, 전자는 BBC심포니의 50주년 기념 콘서트의 실황이라서 특별히 의의가 깊다. 후자는 로열 앨버트 홀에서의 연주다.



Medici Arts DVD 3085298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 (2DVD for 1)

연주: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지휘: 네빌 매리너

피아노의 귀족 페라이어의 고상한 품격

1988년 런던 로열 페스티벌 홀에서 촬영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 영상물. 41세 페라이어가 거장 네빌 매리너의 유명한 악단과 함께했다. 생생한 영상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 두 장의 DVD는 국내에도 많은 페라이어 팬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음반으로 즐겨 듣고 있는 페라이어의 베토벤 협주곡 전곡 녹음은 비슷한 시기 하이팅크의 암스테르담 악단과의 것이다. '피아노의 귀족'이란 찬사에 어울리는 섬세하고 고상한 품격, 정교하고 유려한 스케일과 우미한 프레이징, 따스한 시적 감수성, 수정처럼 투명한 텍스처어, 비길 데 없이 아름다운 톤 등, 페라이어 연주력의 온전한 트레이드마크를 들려준다. 웅골찬 매무새로 절도 있게 지휘하는 매리너와 음악에 몰입해 거의 울상이 되어 있는 페라이어의 표정이 대조되어 인상적이다. 청중의 열광적인 박수세례가 연주의 성과와 그날의 감동을 전해준다.

프랑스 피아노 악파

페를르위테르 / 르페뷔르 / 카자드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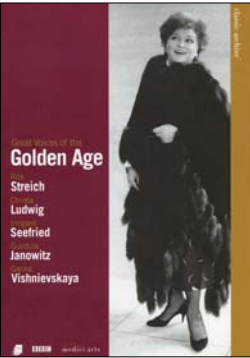
현대 프랑스 피아노 악파를 대표하는 세 명의 피아니스트

블라드 페를르위테르는 파리 음악원에서 모슈코프스키와 코르토한테 배웠던 폴란드 출신의 프랑스 피아니스트, 파리 음악원의 교수로도 재직했다. 그는 이미 1920년대부터 라벨 음악을 집중 연구했고, 1950년대에는 라벨의 피아노곡들을 펴냈을 정도로, 라벨 음악의 권위자였다. 그의 연주로 듣는 라벨은 '왼손을 위한 협주곡'과 '쿠프랭의 통보'다. 1964년 촬영한 쇼팽의 연습곡과 마주르카도 담았다. 베토벤 해석가로 이름 높은 이본 르페뷔르의 베토벤 연주로는 31번 소나타를 담았다. 맑은 톤과 깊은 사색이 일품이며 월철 날듯이 연주한다. 로베르 카자드쉬는 프랑스 음악에 매료된 피아니스트였다. 드뷔시, 샤브리에, 포레 등 프랑스 음악을 잘 연주했지만, 여기서는 포레의 '주제와 변주' 일부를 들려준다. 세상을 떠나기 한 해 전인 1971년에 피아니스트 자택에서 다큐멘터리를 위해 촬영한 것이다. 헵지바 메뉴히의 슈베르트 왈츠, 크로아티아 태생의 이탈리아 피아니스트 디노 치아니의 쇼팽 녹턴도 보너스 트랙에 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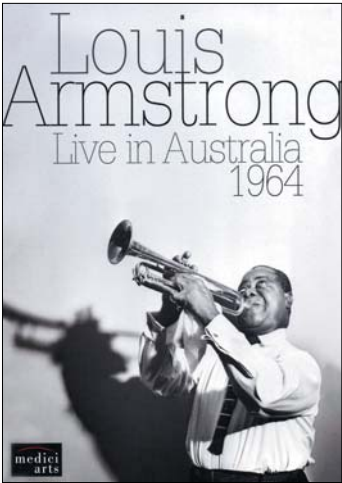
황금시대의 위대한 목소리들
슈트라이히/루트비히/제프리트/야노비츠/비슈네프스카야

그 유명한 '봄에 대한 그리움'을 부른 가수

얼굴을 꼭 보고 싶었던 명가수들이 나온다. 제럴드 무어의 반주로 노래하는 젊은 크리스타 루트비히의 브람스, 말러의 가곡으로 시작하는 이 영상물은, 브람스, 말러, 베토벤, 바그너, 슈만, 슈트라우스, 멘델스존, 슈베르트, 볼프, 모차르트 등의 독일노래들 일색이다. 새파랗게 젊은 군돌라 야노비츠는 알랭 롱바르의 지휘로 콘서트 아리아 'Ah! perfido(아! 부정한 거짓말장이)'를 부른다. 가장 많은 곡을 부르고 있는 리타 슈트라이히는 역시 독일 가곡의 여왕이다. 슈만의 '연꽃', 멘델스존의 '노래의 날개 위에', 브람스의 '자장가', '비밀', 그리고 그 익숙한 피꼬리 같은 음성으로 모차르트의 '봄에 대한 그리움'을 부른다. 아련한 분위기로 노래하는 슈베르트의 '밤과 꿈'은 매혹 자체다! 1953년부터 약 20년간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의 프라마 돈나로 활약했던 비슈네프스카야는 바로 위대한 첼리스트 로스트로포비치의 부인이다. 그녀는 차이코프스키의 세레나데 등을 들고 나왔다.



Medici Arts DVD 3078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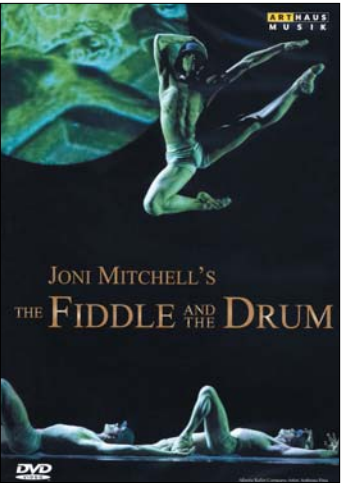
Medici Arts DVD 2056838

루이 암스트롱: 1964년 오스트레일리아 실황

루이 암스트롱, 조 다렌스부르크, 트럼피 영, 빌리 카일, 대니 바르셀로나, 아벨 쇼

위대한 재즈 아티스트 루이 암스트롱이 남긴 소중한 콘서트 실황

전설적인 재즈 트럼펫티이자 싱어였던 루이 암스트롱은 20세기 미국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1964년 오스트레일리아 콘서트는 전체가 온전하게 남아있는 그의 몇 안 되는 콘서트 실황 중 하나로, 이 위대한 아티스트의 활약상이 생생하게 기록되어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재능과 대중친화적인 이미지를 토대로 뉴올리언스 재즈의 대중화게 크게 기여를 하였다. 그의 거침없는 연주기교와 빛나는 소노리티, 그리고 빼어난 선율감각은 트럼펫을 재즈 장르의 대표악기로 자리매김하게끔 만든 원동력이 되었고, 자신의 거친 탁성을 독특하게 활용한 개성적인 스캇창법 역시 그를 대표하는 또 다른 아이콘이 되었다. 2차 대전 이후 그는 자신이 이끌었던 올 스타 섹스텟과 더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를 정력적으로 순회하면서, 재즈의 전도사를 자처하였다. 그의 국제적인 활약상 중의 작은 단편인 1964년 오스트레일리아 투어가 본 DVD에 수록된 것이다. 'Bluberry Hill', 'Mack the Knife' 등의 히트곡을 비롯하여, 그의 상징과도 같은 곡인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재즈 아티스트이자 뛰어난 엔터테이너였던 루이 암스트롱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Arthaus DVD 101 347

Joni Mitchell's The Fiddle and The Drum (알버타 발레)

캐나다의 전설적인 포크싱어 조니 미첼의 노래를 발레로 거듭나다.

조니 미첼은 밥 딜런과 더불어 포크계의 양대 산맥으로 평가받고 있는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다. 알버타 발레의 저명한 안무가 장 그랑-마이트르는 조니 미첼의 노래 10곡을 골라서 매력적인 현대무용으로 재탄생시켰다. 그랑-마이트르는 인류에 의한 환경파괴와 호전적인 인간본성을 꾸준히 노래로 고발해왔던 조니 미첼의 철학을 육체의 격렬한 움직임을 통해 멋지게 표현해내었다. 또한 이 발레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미첼의 노래 10곡은 특별한 리마스터링을 거쳐서 보다 생생한 소리로 거듭났다. 1969년 발표곡인 'The Fiddle and Drum'을 비롯하여, 'Passion Play', 'For the Rose', 'Slouching Towards Bethlehem', 'Sex Kills' 등의 미첼의 히트송들이 망라되었으며, 2007년에 발표되었던 신작앨범 'Shine'에 수록된 신곡 3곡(그중 하나는 빅히트곡 'Big Yellow Taxi'의 리믹스 버전이다)도 포함되었다. 알버타 발레단의 무용수들은 단단한 육체의 아름다움과 뛰어난 춤사위는 미첼의 노래에 깃든 색채와 텍스처를 시각으로 드러내기 위한 멋진 도구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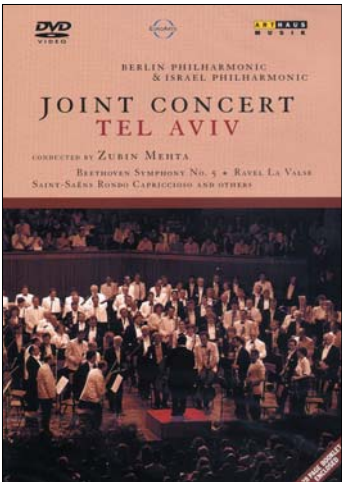
【보조자료】

○ 조니 미첼은 1946년 캐나다의 알버타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로버타 조안 앤더슨이었다. 젊어서 고향인근의 소규모 클럽을 전전하면서 노래를 불렀고, 1960년대 중반 뉴욕에 도착하면서 포크음악계에 발을 넣었다. 1968년 데뷔앨범 'Song to a Seagull'을 발표하면서 주목할 만한 싱어송라이터로 인정받았다. 1974년에 발표한 앨범 'Court and Spark'이 미국 앨범차트의 2위를 차지하는 빅히트를 하였고, 이후 밥 딜런과 더불어 포크음악의 대표아이콘으로 전세계 음악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던 로맨틱 영화 'Love Actually'에서도 조니 미첼의 앨범이 한 에피소드의 소재로 활용되었다.



Arthaus DVD

www.arthaus-musik.com



Arthaus DVD 100 069

베토벤 : 교향곡 5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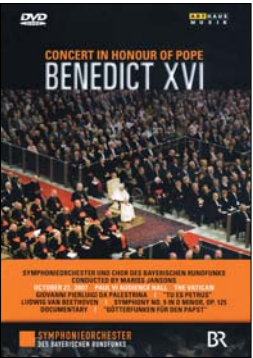
베버 : 클라리넷 협주곡

생상 :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외

샤론 캄(c), 비비안네 하크너(vn), 주빈 메타/ 베를린 필 & 이스라엘 필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베를린 필과 이스라엘 필의 역사적인 조인트 콘서트

나치로 인해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었던 독일과 이스라엘. 1990년이 되어서야 베를린 필이 처음 이스라엘을 찾을 수 있었을 정도로 두 나라 사이의 골을 메우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다. 1990년 4월 베를린 필의 첫 이스라엘 투어는 음악계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큰 관심을 모았던 이슈였다. 특히 이들은 투어의 마지막을 이스라엘 필과의 조인트 콘서트로 치러냄으로써 두 민족 사이의 화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었다. 본 DVD에는 1990년 4월 18일 텔아비브의 프 레드릭 R 만 오디토리엄에서 있었던 이 조인트 콘서트가 고스란히 수록되었다. 이스라엘 필의 종신 음악감독이자 베를린 필을 자주 객원 지휘했던 주빈 메타가 지휘봉을 잡았고, 200여명에 달하는 두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무대를 가득 메우고 거대한 스케일의 베토벤 교향곡 5번을 들려준다. 양국을 대표하는 젊은 기대주들인 비비안네 하크너와 샤론 캄이 각각 생상과 베버의 작품을 협연하였다. 현재 세계적인 연주자로 자리매김한 샤론 캄의 옛된 모습을 만나보는 것도 이 영상물의 또 다른 재미다.



Arthaus DVD 101 457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팔레스트리나: 모테트 '투 에스 페트루스'

크라시미라 스토야노바(소프라노)/ 리오바 브라운(메조소프라노)/ 미카엘 샤데(테너)/ 미카엘 볼레(베이스)/ 마리스 안손스(지휘)/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과 합창단

마리스 안손스, 바티칸에서 합창교향곡을 지휘하다!

2007년 10월 27일 바티칸의 파올로 6세 홀에서 펼쳐졌던 교황 어전연주회 실황. 마리스 안손스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과 합창단이 팔레스트리나의 모테트 '너는 베드로다'와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을 연주한 이 특별한 콘서트는 가톨릭신자는 물론, 종교와 무관한 일반음악애호가들에게도 상당히 매력적인 수집품이 될 것이다. 안손스는 명실상부한 현역 최고의 지휘자의 한 사람임에도 의외로 베토벤 디스코그래피가 그리 풍요롭지 못한 편이다. 그가 지휘하는 베토벤에 갈급한 이들이라면 이 영상물이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1악장 서두에서부터 돋보이는 안손스 특유의 꼼꼼한 디테일과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우수한 연주는 이벤트적인 의의를 넘어서서 순수악적인 측면에서도 감탄할 만한 명연을 완성하였다. 특히 장쾌한 스케일로 연출된 마지막 악장의 감동은 각별하다. 이 특별한 연주회의 준비과정과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 세계각지로부터 바티칸으로 모여든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45분 분량의 다큐멘터리가 보너스로 제공된다.



Arthaus DVD 101 285

베르디: 리골레토

레오 누치(리골레토), 포트리 베찰라(공작), 엘레나 모슈크(질다)/ 넬로 산티/ 취리히 오페라

현존 최고의 리골레토 레오 누치와 이탈리아 오페라의 베테랑 넬로 산티의 감동적인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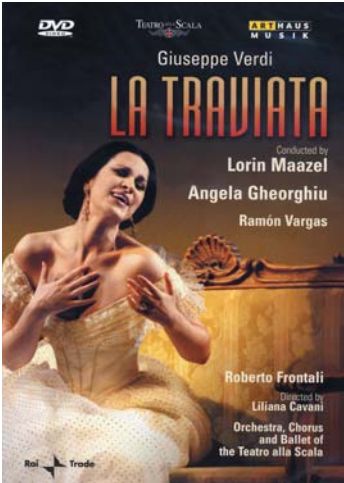
이탈리아의 국보급 바리톤 레오 누치는 1973년 밀라노에서 '리골레토'로 큰 성공을 거둔 이후 30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이 배역 최고의 가수로 군림해오고 있다. 2006년 스위스 취리히 오페라하우스에서 있었던 공연을 기록한 이 DVD는 누치의 리골레토 중에서도 첫 손에 꼽힐 정도로 감동적인 열연을 수록하고 있다. 이 공연을 빛나게 만든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은 지휘자 넬로 산티이다. '파파 산티'라는 애칭으로 유럽 일급 오페라 극장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노대가의 관록과 이 오페라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이 공연을 통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두 거장의 뒤를 받치고 있는 젊은 신예들의 활약도 눈부시다. 그간 모차르트의 오페라들을 통해 좋은 평가를 받아왔던 폴란드 출신의 테너 피오트르 베찰라의 맑은 미성과 작은 몸집에도 당당한 목소리를 들려주는 루마니아계 스위스 소프라노 엘레나 모슈크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다. 여기에 베테랑 베이스 라슬로 폴가의 스파라푸칠레와 미모와 연기가 돋보이는 카나리나 페츠의 막달레나가 연주의 완성도를 드높였다.

[보조자료]

○ '리골레토'는 베르디의 오페라들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은 작품에 속한다. 빅토르 위고의 희곡 '일락의 왕'을 기초로 프란치스코 마리아 피아베가 완성한 리브레토를 사용하였고, 1851년 베니스의 라 페니체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공작의 두 아리아 '여자의 마음'과 '이것도 저것도', 질다의 아리아 '그리운 이름', 리골레토가 부르는 분노의 아리아 '저주받을 신하들아', 4중창 '사랑스러운 딸' 등 주옥과 같은 선율들로 채워진 걸작 오페라다.

○ 레오 누치는 1942년 볼로냐에서 태어났다. 1967년 스폴레토 콩쿠르에서 우승하였고, 이를 계기로 '세비아의 이발사'의 피가로로 데뷔하였다. 1973년에는 베르첼리 콩쿠르에서 우승하였고, 같은 해 처음 리골레토로 호평을 받았다. 그는 지금까지 400회 이상의 공연을 통해 현존 최고의 리골레토로 극찬을 받아왔다. 또한 2004년 7월에는 조수미와 더불어 세종문화회관에서 리골레토를 공연하기도 하였다.

○ 지휘자 넬로 산티는 1931년 베니스 인근에서 태어났다. 1951년 파두아 오페라극장 리골레토를 지휘하면서 데뷔하였고, 라 스칼라, 코벤트가든, 파리 오페라, 빈 국립오페라, 베로나 아레나 등의 정상급 오페라 무대를 두루 거치면서 정통 이탈리아 오페라 지휘자의 당당한 풍모를 자랑해왔다.



Arthaus DVD 101 343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안젤라 게오르규(비올레타), 라몬 바르가스(알프레도), 로베르토 프론탈리(제르몽)/ 로린 마젤/ 밀라노 라 스칼라 오페라

여전히 아름다운 게오르규, 로린 마젤의 강렬한 카리스마, 라몬 바르가스의 열창

루마니아 출신의 세계적인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는 솔티와 함께했던 1994년 코벤트가든의 '라트라비아타' 공연실황으로 미모와 재능을 겸비한 오페라계의 새로운 히로인으로 화제의 중심에 자리 잡았었다. 네트렘코의 등장으로 인해 게오르규의 '라트라비아타'가 다소 세인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진 느낌이지만, 2007년 밀라노 라 스칼라에서의 공연실황을 담은 본 DVD는 그가 여전히 매력적이고 우아한 비올레타임을 다시금 증명해준다. 13년 전에 비해 연륜이 배어나오는 얼굴이지만, 우아한 자태와 기품이 배어나오는 연기는 이전보다 한결 농익은 느낌이다. 뛰어난 연기에 혼신의 열창이 더해져 1994년의 영상에 버금가는 매력만점의 비올레타를 형상화하였다. 로린 마젤은 강렬한 카리스마로 전곡을 이끌어 나가며, 멕시코 출신의 세계적인 테너 라몬 바르가스의 성실한 가창과 이탈리아의 관록의 바리톤 로베르토 프론탈리의 듬직한 서포트로 인상적이다. 연출가 릴리아나 카바니는 과거 모험적인 연출로 술한 화제를 낳기도 했지만, 본 영상에서는 호화로운 무대와 정통적인 연출로 일반적으로 기대하게 되는 이 오페라의 이미지를 충실히 반영해내었다.

[보조자료]

○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는 '춘희'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진 주세페 베르디의 인기 오페라다. 원작은 알렉상드르 뒤마의 소설 '동백꽃 여인' (La Dame aux Camélias)이며, 프랑체스코 마리아 피아베가 완성한 리브레토를 사용하였다. 초연은 1853년 3월 6일, 베네치아의 라 페니체 극장에서 이루어졌다. 오페라의 초두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합창이 덧붙은 이중창 '축배의 노래', 유명 프리마돈나들의 필수 레퍼토리인 '아 그대인가', 제르몽의 아리아 '프로벤자 네 고향으로', 이중창 '파리를 떠나서' 등의 인기곡들을 담고 있다.

○ 안젤라 게오르규는 1965년 루마니아에서 태어났다. 1992년에는 '돈조반니'의 체를리나로 코벤트가든 무대에 처음 올랐고, 이듬해는 빈 국립오페라와 메트로폴리탄에 '사랑의 묘약'의 아디나와 '라보엠'의 미미로 각각 데뷔하였다. 1994년 코벤트가든에서의 '라트라비아타'로 일약 세계적인 오페라 히로인으로 등극하였고, 이후 테너 알라나와 결혼함으로써 오페라계에 큰 화제를 낳기도 했다.

○ 멕시코가 낳은 세계적인 리릭 테너 라몬 바르가스는 1982년 카를로 모렐리 콩쿠르와 1986년 밀라노 카루소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다. 벨칸토 레퍼토리와 프랑스 낭만 오페라에서 특히 두각을 드러내었으며, 맑은 미성과 민첩한 성악기교로 3테너의 뒤를 잇는 대형 테너로 성장하였다.



Arthaus DVD 101 325

바그너: 트리스탄과 이졸데

요르단카 데릴로바(이졸데), 리처드 맥커(트리스탄), 마렉 보이치에초프스키(마르케)/ 골로 베르크/ 뎃사우 안할트 극장

독일 소도시 오페라극장의 놀라운 저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감동의 무대

켈트 전설에서 모티브를 따온 바그너의 악극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사랑의 묘약에 취한 나머지 금지된 사랑에 말려든 왕비와 기사에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바그너가 실제로 겪었던 베젠동크 부인과의 금지된 사랑의 아픈 경험이 이러한 걸작을 낳은 원동력이 되었다. 본 DVD는 2007년 독일 뎃사우의 안할트 극장 무대에 올랐던 공연실황을 수록한 것이다. 안할트 오페라극장은 유럽 오페라의 중심과 다소 거리가 있는 변방의 극장이지만, 이 프로덕션에서 드러나는 이들의 잠재력은 감탄스러울 정도다. 전설적인 연출가였던 발터 펠젠슈타인의 아들인 요하네스 펠젠슈타인의 연출은 독일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 극장의 회전무대를 적절히 활용하였으며, 상징성과 사실성을 적절히 절충한 슈테판 리크호프의 무대미술과 의상도 인상적이다. 바그너와 베르디의 드라마틱 배역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불가리아의 소프라노 이오르단카 데릴로바와 2005년 코리아 심포니 창단 20주년 기념 연주회에서 트리스탄 2막을 들려주었던 미국의 헬덴테너 리처드 맥커가 기대 이상의 열창을 들려준다. 바이로이트 축제극장을 제외한 모든 오페라극장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작용하는 기악과 성악의 음량 밸런스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케스트라가 연기가 펼쳐지는 회전 무대의 뒤쪽에 자리잡은 점도 흥미롭다.

[보조자료]

○ 영국 콘월의 기사 트리스탄과 아일랜드의 공주 이졸데의 슬픈 사랑을 담은 켈트인의 전설은 중세유럽을 대표하는 연애담으로 널리 알려졌다. 12세기 말에 활동했던 독일의 민네징거 고트프리트 폰 슈트라스부르크는 이 전설을 로망스로 갈무리했다. 바그너는 이 로망스의 내용을 토대로 리브레토를 만들었고, 여기에 음악을 붙여 3막의 뮤지컬 드라마를 완성하였다. 1859년에 완성되었지만, 초연은 1865년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다. 이 오페라에 사용된 반음계적인 음악어법은 이후 20세기 음악의 중요한 자양이 되었고, 바그너 자신이 꿈꾸던 극과 음악이 일체가 된 새로운 스타일의 무대예술이 최초로 현실화되었던 작품이기도 하다.

○ 뎃사우는 과거 동독지역이었던 작센-안할트 주의 중요도시중 하나다. 과거 바우하우스가 소재했던 도시로 잘 알려져 있으며, 지금도 그와 관련된 건물들이 도시 곳곳에 남아있다. 나치의 탄압으로 바우하우스는 폐쇄되었었지만, 1979년 그 정신을 계승한 바우하우스-뎃사우 대학이 다시금 이 도시에 설립되었다. 뎃사우 극장은 1925년에 완공되었다. 2차 대전 기간 중 완파되어 1949년에 재건되었다.



Arthaus DVD 101 329

푸치니: 제비

피오렌차 체돌린스(막다), 페르난도 포르타리(루제로), 산드라 파스트라나(리제테), 엠마누엘레 잔니노(프루니에르)/ 카를로 리치/ 베니스 라 페니체 오페라

푸치니의 버림받은 오페라, 최신 영상물로 화려하게 부활하다

푸치니의 '제비'(La Rondine)는 원숙기에 씌어진 작품임에도, 작곡가의 오페라들 중에서 가장 드물게 공연되는 작품에 해당한다. 영화 '전망 좋은 방'에 삽입되었던 아름다운 아리아인 '도레타의 꿈'이나 2막의 무대인 클럽 일 볼리에르의 흥겨운 장면 등등 매력적인 부분들이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곡가의 다른 인기작들의 위용에 가려져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불운한 작품이다. 전국음반이나 영상 역시도 많지가 않기에, 2008년 베니스 라 페니체 극장의 무대에 올려졌던 이 공연실황은 이 오페라를 원하는 애호가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다. 베르디와 푸치니 오페라의 스페셜리스트인 카를로 리치의 노련한 지휘와 1996년 파바로티 콩쿠르 우승이후 유럽 일급 오페라 하우스들을 누비고 있는 정상급 소프라노 피오렌차 체돌린스의 열창이 음악적 완성도를 높였으며, 60년대 풍의 밝은 색조의 화사한 의상과 세련된 무대 디자인, 무량루즈를 연상케 하는 2막 '일 볼리에르'의 화려한 무대 미술, 그리고 명 연출가 그레이엄 비크의 사실적인 연출은 시각적인 만족감을 충분히 채워줄 것이다.

[보조자료]

○ 푸치니는 오페레타와 유사한 서정 코메디로 이 작품을 기획했지만, 실제 만들어진 결과물의 내용인 진지한 편이다. 갑부 은행가의 젊은 아내인 막다는 청년 루제로와 사랑에 빠진다. 막단은 한 마리 제비처럼 따뜻한 남녘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젊은 애인의 진지한 청혼에 냉정하게 현실로 되돌아와 자신 본연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시인 프루니에르와 스타를 꿈꾸는 막다의 하녀 리제테의 연애담이 양념처럼 덧붙여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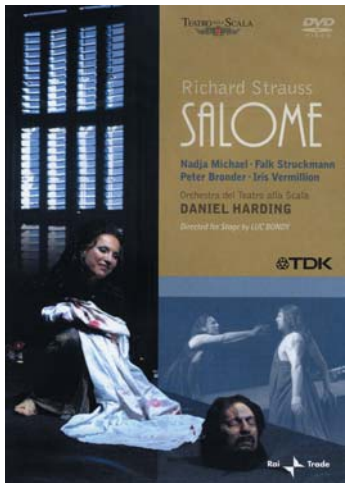
○ 연출자 그레이엄 비크는 브릿팝(영국대중음악)의 열렬한 애호가다. 메트로폴리탄, 빈 국립 오페라,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 로얄 오페라 코벤트 가든과 같은 세계 최고의 오페라극장들에서 자신의 팝적인 감각을 가미한 독특한 오페라 연출로 크게 호평을 받아왔었다.

○ 여주인공 막다를 노래하는 피오렌차 체돌린스는 1996년 파바로티 콩쿠르에서 우승한 후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드라마틱 소프라노로 활동 중인 스타다. 드라마티코로는 드물게 투명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연기력도 뛰어나다. 그동안 <아이다>, <토스카>등 소프라노에게 상당히 무거운 배역을 통해 스타덤에 올랐지만, 이 영상물에서는 경쾌한 매력을 선보였다.



TDK DVD

www.tdk-music.com



TDK DVD DVWW-OPSALOME

R 슈트라우스: 살로메

나디아 미카엘(살로메), 팔크 슈트룩만(요한), 페테르 브론더(헤로데스), 이리스 베르밀리온(헤로디아스)/ 다니엘 하딩/ 밀라노 라 스칼라 오페라

현존 최고의 살로메의 탄생을 알렸던 센세이션날 공연실황

R 슈트라우스의 첫 오페라 출세작인 '살로메'는 복음서에 기록된 세례요한의 마지막 순간을 자극적으로 각색 해놓은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에 기초한 작품이다. 근친애, 스트립 댄스, 잔혹한 참수, 잘린 머리에 대한 끔찍한 애정행각 등등 온갖 문란하고도 참혹한 소재들이 등장하는 이 문제의 오페라는 초연 이후 지금까지도 공연 때마다 여러 가지 화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본 DVD에 수록된 2007년 3월의 라 스칼라 공연은 현역 최고의 살로메의 탄생을 알리는 역사적인 공연이었다. 바로 이 공연의 타이틀 롤을 맡았던 독일 소프라노 나디아 미카엘이 그 주인공이다. 강한 목소리와 뛰어난 표현력, 그리고 무대를 압도하는 강렬한 카리스마로 살로메의 전형을 연기해내었다. 영국이 자랑하는 젊은 거장 다니엘 하딩의 군더더기 없는 명쾌한 지휘 역시 이 뛰어난 공연의 한 축을 맡고 있으며, 보탄으로 명성이 높은 팔크 슈트룩만의 선 굵은 요한 역시 훌륭하다. 역시 미카엘이 주연을 맡았던 맥비가 연출의 2008년 코벤트가든 실황이 자극적인 연출로 큰 충격파를 안겨주었지만, 음악적인 완성도 면에서는 이 공연이 보다 우위에 있다.

(보조자료)

○ 살로메의 이야기는 복음서(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에 등장하는 세례요한의 죽음에 기초한다. 봉분왕 헤롯 은 자신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스와 결혼한다. 세례요한이 이를 나무라자 헤롯은 그를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두어버린다. 한 잔치날 헤로디아스의 딸(복음서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으며, 살로메라는 이름은 구전된 것이다.)이 춤으로 헤롯과 손님들을 기쁘게 하자, 헤롯은 그 딸에게 원하는 것 한 가지를 약속한다. 헤로 디아스는 딸에게 요한의 목을 요구하라고 주문했고, 결국 요한은 목이 잘려 죽게 된다.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은 이 이야기에 헤롯과 조카 살로메 사이의 근친애, 요한에 대한 살로메의 병적인 집착, 시신에 대한 애정 표현 등을 첨가하여 보다 자극적인 느낌으로 각색되었다.

○ 라이프치히 출신의 소프라노 나디아 미카엘은 슈투트가르트 음악원과 미국 인디애나 대학 음대에서 노래를 배웠다. 처음에는 메조소프라노로 캐리어를 시작하였으나, 소프라노로 전향한 이후 본격적으로 음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토스카, 산투차, 피델리오, 레이디 맥베스, 살로메와 같은 격정적인 캐릭터에 능하다. 본 DVD에 수록된 2007년 2월 밀라노 라스칼라의 <살로메>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후 베를린 슈타츠크펠레, 로얄 오페라 코벤트가든 등에서 같은 역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 다니엘 하딩은 영국이 자랑하는 젊은 거장이다. 1975년생인 그는 아바도와 래틀의 든든한 후원을 통해 20대 초반부터 세계 정상급 악단들을 두루 객원지휘했으며, 트론티하임 심포니, 노르세핑 심포니, 도이체 캄머필하모니 브레멘 등의 수장을 거쳤다. 아바도가 조직한 말러 챔버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이며, 스웨덴 방송교향악단의 음악감독도 겸하고 있다.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천상의 보이소프라노

알레드 존스 ALED JO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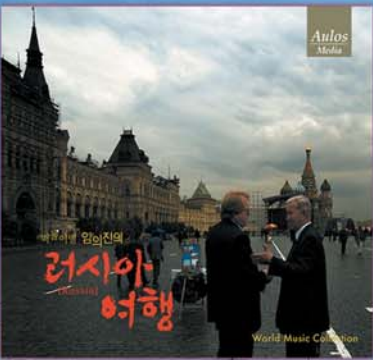
“Ave Maria,,

본 음반은 1985년에 처음 싱글로 나와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던 앨범이다. 바흐-구노의 <아베마리아>를 위시하여 헨델의 <옴브라 마이 푸(라르고)>, 카치니의 <아마릴리 내 사랑>, 바흐의 <양들은 편안히 풀을 뜯고>, 마르티니의 <사랑의 기쁨>, 슈베르트의 <실비아에게>, 모차르트의 <아누스 데이>등 그야말로 보석 같은 클래식 레퍼토리들을 축으로 하여 '천상의 보이소프라노'라는 탄성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한국 한국에 감동이 있는 음반이다.



AMC2-097

외롭게 떠도는 방랑자 임의진의 신보 러시아 여행. 월드뮤직의 이정표 <여행자의 노래>의 또다른 결가지 떠돌이별 시리즈. <보헤미안>, <기차 여행>, <쿠바 여행>에 이어 네 번째 여행지



AMC2-095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서 내려 시베리아 횡단열차로 갈아타 모스크바를 향하는 길엔 이 노래와 함께하시길!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러시아 인디 포크 총망라. 닥터지바고 '라라의 테마'의 달콤한 해석은 덤. 올 겨울 난로불과 같은 노래들 속엔 고려인들의 사랑노래 '동철씨' 포함. <레닌이 있는 풍경>의 다큐 사진작가 이상엽의 사진.

떠돌이별 임의진의
러시아
[Russia]
여행

NAXOS DIGITAL SERVICES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로 선정,
세계 최대 클래식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는 **NAXOS**는

방대한 자체 레퍼토리와 유럽 음반사들의 음원들을 더한
클래식 전문 스트리밍 사이트인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와
재즈 전문의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를 선보입니다.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korea

- 약 18,500개 음반 / 250,000여 트랙의 클래식, 재즈, 월드뮤직 음악 서비스
- Naxos & Marco Polo 전체 레퍼토리와
- Analekta, ARC, Artek, BIS, Bridge Records, CBC, Celestial Harmonies, Collegium, Dacapo, First Edition, Gimell, Hänssler, Morrison Music Trust, PentaTone, Prophone, Proprius, Toccata Classics 레이블의 음악
- 매달 25~30여장의 음반 업데이트
- 오페라 대본, 작곡가, 아티스트 및 작품 해설 등의 유용한 정보제공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jazz

- Naxos Jazz와 Fantasy Jazz 등 22개 유럽 재즈 레이블 음악
- 총 2,000여 개 재즈 음반 / 약 20,000 트랙
- 약 500여명 에 이르는 재즈 뮤지션들의 음악

“거대한 음원의 바다...”

(그라모폰 코리아)

“지금까지 접해본 가장 인상 깊은 디지털 라이브러리.”

(미국 도서관 저널, 평가 등급 A+)

“시·공간이 절약되는 온라인 콘텐츠”

Sound Quality: CD Quality (128K) / Near-CD Quality (64K)

시범서비스 & 문의

NAXOS KOREA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51-37 이테크밸리 1206호
Tel_02 717 1070 / E-mail_naxoskorea@naxos.com
www.naxoskorea.co.kr



KBS 클래식 FM

KBS 1FM과 아울로스미디어가 공동 기획하는
월드뮤직 컴필레이션의 대명사

세상의 모든 음악 5

즐거운 편지



절찬리
판매중

AMC2-095

어느날 당신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음악은 쓰러지려는 당신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으며,
삶에 온기가 부족한 날 당신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줄
추억의 난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표를 붙이고 가지 않아도 순식간에 도착하는 편지이며,
언제든 다시 열어볼 수 있는 즐거운 편지라는 것을...



표지사진

아울로스에서 수입하는 레이블들

〈아울로스뉴스〉 2009년 1월호

통권 제 35호 발행 : 2009년 1월 5일

발행인 : 임용묵

출력 : 좋은그림 인쇄 : (주)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edia.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대)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